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

주 최 수원시평생학습관

공동주관 광명시평생학습원, 군포시평생학습원, 남양주시평생교육원, 수원시평생학습관,
은평구평생학습원, 평생교육실천협의회

후 원 한국평생교육학회,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
(사)한국평생교육총연합회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
패러다임의 전환, 일상에서 만나는 시민교육

사회 : 신민선((사)한국평생교육사협회장)

개회 14:00-14:05	심포지엄 소개
[기조강연] 14:05-14:30	시민교육의 일상화: 의미, 조건 및 과제 김민호(제주대학교 교수)
[주제발제1] 14:30-14:45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본 시민교육 박현규(서울생명의전화 교육실장)
[주제발제2] 14:45-15:00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은평의 경험 김미윤(은평구평생학습관장)
[주제발제3] 15:00-15:15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김미란(광명시평생학습원장)
[주제발제4] 15:15-15:30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정성원(수원시평생학습관장)
휴식 15:30-15:40	
[질의응답] 15:40-16:30	문자로 참여하는 현장 질의응답

차 레

- 05 기조강연 시민교육의 일상화: 의미, 조건 및 과제
- 25 주제발제1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본 시민교육
- 43 주제발제2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은평의 경험
- 65 주제발제3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 79 주제발제4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기 조 강 연

시민교육의 일상화:
의미, 조건 및 과제

시민교육의 일상화: 의미, 조건과 과제

김민호 · 제주대학교 교수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1980년대 후반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정치적 민주화를 형식적으로 확보한 뒤,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영역 등에서 실질적 민주화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최장집, 2010). 특히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시장중심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고, 시민사회의 지평을 지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지역에서는 기초자치단체 혹은 아파트단지를 단위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운동’, 마을 만들기, 협동조합의 조직화 등 공동체적 삶을 가꾸어가는 ‘지역공동체운동’, 국가와 자본 주도의 지역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인권 등을 지키기 위한 ‘지역개발 반대운동’ 등이 곳곳에서 전개되었다.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다양한 유형의 지역 운동 이전이나 이후의 교육 프로그램 혹은 지역 운동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성(citizenship)을 형성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은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습동아리, ‘누구나학교’, ‘학습등대’, 교육봉사 등 ‘학습공동체운동’을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학습기회의 양적 확대에 주력했고, 시민들이 학습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문해교육, 인문학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등을 통한 시민성 형성에도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지역 주민들은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의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시민성을 학습해 왔다. 사적 이해관계를 넘어 공존과 공익,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학습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시민적 책임감은 한층 높아졌다.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시 과거 권위주의 체제로부터 벗어나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파고들어가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국민시대’다. 국가가 앞장

서서 각성하던 시민을 ‘국가개조’라는 수직적 그물망을 통해 다시 ‘국민’으로 귀속시키려 한다. 세월호 사태 해결의 책임과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시민은 그냥 관객으로 머물러 한다(송호근, 2015: 336-340). 주민자치운동, 지역공동체운동, 학습공동체운동, 심지어 지역개발반대운동 등 시민사회 영역 안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쌓아 온 삶의 토대가 부지불식간에 국가와 거대 자본에 의존해야만 하는 허약한 구조로 변질될 우려에 놓여 있다. 송호근(2015:340)의 표현대로 자칫 “시민성 배양의 기반이 토막날” 위기에 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을 냉정하게 성찰하지 않는다면, 민주사회, 시민사회, 공동체사회 등의 가치를 실현시키기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다도 시민교육이 매우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교육은 ‘사회적 효율성’ 원칙에 따라 그 사회의 경제기반을 강화·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개별 ‘교육소비자’에게 사회적 계층이동의 개방된 통로로 기능하며, ‘사회적 평등’ 실현의 원칙 아래 민주 사회를 유지·발전시키는 목적을 지닌다. 한 사회의 공교육은 그 역사적 맥락에 따라 이상의 세 가지 목적들 가운데 어떤 것을 더 강조하고 다른 것을 소홀히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나타냈다(Labaree, 1997). 작년 세월호 사건의 발생 및 수습과정이나 올해 메르스 전염병의 대처 과정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공적 책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했다. 사회나 도덕 교과서 등을 통해 민주시민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학생들의 충분한 민주적 시민 참여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쟁적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학력 수준을 향상시켜 좋은 대학에 진학하거나 경제사회가 요구하는 직업 역량 개발만을 우선적으로 강조해 온 결과이다. 게다가 최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며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역사 학습의 자유와 다원적 삶을 가로막는 비민주적 처사라 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 사회는 학교교육이든 학교 밖 교육이든 인적 자본의 개발을 강조할 뿐 민주적 가치의 전달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그래서 이 발표는 평생교육을 공부하는 한 사람으로서 시민교육을 ‘일상화’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특정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시민들이 다양한 시민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만으로 우리 사회에 요구되는 시민교육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리의 일상 전부를 시민-되기의 시각에서 냉철하게 반성하고, 시민교육을 단지 시민성을 함양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시민단체 활동처럼 우리의 다양한 삶의 영역(field)의 하나로 바라보기보다, 하나의 삶의 형식(forms)으로 받아들여려는 것이다. 시민교육을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삼겠다는 뜻이다(조용환 외, 2010).

Ⅱ. 시민과 시민성

우리가 사용하는 시민(citizen)이라는 개념은 애초에 도시(city)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켰다. 시민은 인간이나 개인과는 달리 특정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내포한다. 하지만 오늘날 시민으로서의 특성을 나타내는 공동체는 혈연,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진 전통사회도 아니고, 영토와 주권으로 경계 지어진 국가도 아니다. 단지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된 회사 같은 경제적 조직체도 아니다. 이제 시민의 특성은 ‘자발적 결사체’들로 이뤄진 시민사회에서 찾아봐야 한다. 시민사회는 일반적으로 국가와 분리된 실체이다. 국가가 “주어진 영토 내에서 인민에 대한 물리적 힘의 사용을 정당하게 독점할 수 있는 강제적 조직”인 반면에, 시민사회는 “국가의 직접적 통제 바깥에서 개인들과 집단 간에 사적 또는 자발적 협정에 의해 조직되는 사회생활영역 곧 가정생활, 경제영역, 문화활동, 정치적 상호작용 등”으로 이해된다. 국가가 다른 사회조직과 달리 “보편적 회원제와 강제력”을 특징으로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가가 아닌 모든 영역을 골고루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이다(임혁백, 1993: 79-80).

시민사회에 대한 해석은 서구 정치사상에 따라 달랐다(오문환, 1999). 자유주의적 사회계약론자들은 국가권력의 지배에 대항하는 시민사회의 해방적 성격을 강조했다. 절대왕정에 대해 어떤 억압도 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자의식과 합리성, 자유와 권리, 법과 주권의 실현을 강조했다. 반면에 시민사회란 이기적 개인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체계로서 사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자의적으로 전횡할 수 있는 위험을 갖는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중립적이고 공적인 국가 혹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통해 이기적 욕망체계로서 시민사회를 극복하고자 했다. 다른 한편, 국가-시민사회의 이분 모델과 달리 국가-생산양식-시민사회의 삼분 모델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를 사회적 헤게모니를 형성하는 곳 혹은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공론장(Öffentlichkeit)을 형성하는 ‘생활세계’로 간주한다. 여기서 시민사회를 공론장이 형성되는 생활세계로 간주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지닌다. 첫째, ‘신분질서를 벗어나 계약질서로 맺어진 독자적 개인들’이고, 둘째, ‘전통적 이해관계(혈연, 지연, 학연)에서 벗어난 개인들’이며, 셋째, ‘공익의 중요성에 눈뜬 개인들’이다(송호근, 2015: 347).

시민의 시민성(citizenship)은 지위(status)와 활동(activity)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 특정한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부여받은 법적 지위를 지칭하거나, 정치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비로소 시민이 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활동으로 간주되었다(변종현, 2014). 시민성은 해당 정치공동체가 ‘좋은 시민’(good citizen)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음(Heater, 2007)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사회가 기대하는 좋은 시민이란 1990년대의 ‘참여적 시민’을 넘어 ‘지역 사회 시민’이다. 사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지역의 생활과 관련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역의 시민운동 차원에서 지역사회 시민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지역 경제의 자생성과 문화적 정체성이 급격히 약화되고, 국가 권력이 지자체와 협력하며 이른바 국책사업을 거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한국일보 2014.10.24.)에서 강정 해군기지 건설반대 투쟁이나 밀양 송전탑 설립 반대운동 사례처럼 지역사회 곳곳에서 시민적 저항이 나타났다. 서울의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지역사회의 풀뿌리 시민운동, 지역사회활동, 자원봉사, 주민자치, 시민교육 등에 눈을 돌렸다. 다양한 문화단체, 청년들이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지역을 기반으로 구체적 일상 안에서 실험하고 있다. 예컨대, ‘○○은대학’(2009년-2014년)과 광주의 ‘창의예술학교’(2013년-2015년 현재)(정경운, 2015), 광주남구 ‘알토리운동’(2012년-현재)(민문식, 임형택, 2015)과 같은 학습공동체들이 조직되었다. 그 밖에도 카톡과 밴드, 학습동아리 등을 통한 느슨한 연대 형식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시민참여 활동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작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사회에 대한 비판을 넘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는 ‘시민교육 연구모임’처럼 시민교육을 향한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잠재된 열망도 표출되고 있다.

이제 ‘좋은 시민’이란 부당한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옹호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를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지역사회 안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의 비전을 지니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할 역량을 지닌 시민’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좋은 시민인 것이다. 이제 우리 시민사회는 지역사회에 관심을 두면서 종래 저항과 비판의 담론을 넘어 대안과 참여의 맥락에서 시민의 주체적 역량을 개발하는 데 관심을 보여야 할 시대적 과제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시민의 주체적 역량은 무엇인가? 지역사회시민을 형성하고자 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누구나 똑같은 시민이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사회 제 영역에서 배제되어 온 개인이나 집단이 (국가)권력, 제도, 관행, 문화 등의 ‘차별과 폭력에 저항할 수 있는 주체적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지금까지 억압받아 왔던 계급,

1) 2009년 청년실업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부각하면서 ‘(재)함께일하는재단’이 ‘마포는대학’부터 시작해 주민강사를 발굴해 이들이 일상에서 익힌 직업적 노하우를 청년들에게 알려주는 강좌를 진행함. 2011년 ‘구로는예술대학’ ‘온수리대학’(이후 ‘강화는대학’으로 개칭), 2012년 ‘부평은대학’ ‘부천은창조대학’ 2013년 ‘성북은대학’ 등으로 확장해 나감.(정경운, 2015)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소수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억압했던 집단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는 태도이다. 경제적 차이, 성이나 연령의 차이, 지역이나 인종적 차이, 문화적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으로서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을 지니고 있음을 학습하는 것이다. 경제적,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넘어서서 사회적 통합(social cohesion)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Johnston, 2006)이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우리는 서로 다르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연대하고 공존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보편적 인권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질성, 파편화, 탈 중심화 등에 대해 타협과 변화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이다. 공통의 이해관계와 공통의 문화를 차이와 정체성의 정치와 연계한다. 문화 간 대화를 강조하며, ‘다양성 속의 연대’를 발전시킨다(Johnston, 2006). 주류 집단은 소수자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연대하고, 지금까지 억압받아 왔던 계급, 성, 세대, 인종, 지역, 문화 등의 소수자는 억압했던 집단과 갈등을 넘어 공존의 방법을 찾는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는 인식 아래 사회 구성원들이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려는 성찰적 자세’가 요구된다(Johnston, 2006). 예컨대 고용 없는 성장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시민성의 범주를 임금노동자에 한정하지 않고 무임금 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확대하는 것이다. 시장 중심의 가치가 아니라 삶 중심의 가치를 바탕으로 무임금으로 가사노동,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이들, 대표적으로 여성 덕분에 임금노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무임금 노동자에 대한 임금 노동자의 책임을 성찰하는 것이다. 무임금 노동자가 지닌 ‘돌봄의 시민성’(caring citizenship)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임금 노동자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English & Mayo, 2012). 또 학생이 자신의 인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책임을 성찰하는 자세이다. 성소수자로서 인권만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감도 함께 생각하는 것이다.

넷째, “실천하지 않고서는 변화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국가나 경제의 직접적 통제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시민사회 공간 안에서 대안적 형태의 정치적 표현과 관여의 전망을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앞의 세 가지 시민성을 행동으로 통합한 ‘행동하는 시민성’이다(Johnston, 2006). 행동하는 시민성은 개별적이고, 경제지향적이며, 통제된 평생학습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다. 행동적 시민성은 교실보다는 학습 동아리, 자발적 조직, 사회운동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형의 집단 활동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Ⅲ. 시민교육의 일상화

우리가 기대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종전의 기계적 교육 모형에 따라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시민성을 찍어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하지만 이미 평생교육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프로그램 중심 접근의 한계는 명확하다. 진정 의식 있는 시민을 길러내기보다 성과주의에 머물고 말았다. 우리가 시민교육의 일상화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1. 시민교육 일상화의 의미와 필요성

가. 시민교육 일상화의 의미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시민교육이 일상 안에 존재하고, 동시에 일상이 시민교육 안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시민교육이 일상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은 시민교육이 ‘학교태’만이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공간과 시간 속에 구체적인 모습으로 편재함을 가리킨다. 우리의 일상인 가정, 학교, 마을, 직장, 자원단체, 종교기관 등 다양한 실천공동체 안에서 시민교육의 초심자가 ‘합법적 주변 참여’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시민성,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점차적으로 습득해 가는 모습(Lave & Wenger, 2010)을 상상할 수 있다. 달리말해 시민교육을 지식교육이 아닌 시민의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이지혜·위영은, 2013)의 맥락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이 때 시민교육은 비록 체계성을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 안에서 ‘무형식적’으로 실천되며, 무형식적 학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의 연계망(learning pathway)’을 거쳐 진화한다(McGivney, 1999).

한편 “일상이 시민교육 안에 존재 한다”는 것은 구체적 일상을 추상적 시민성 학습의 내용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때 학습자는 자신의 구체적 일상 경험에 대한 반성을 통해 또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른바 ‘경험학습’을 하거나(김경애, 2006; 이경아, 2014), 아니면 ‘인문학 학습’을 통해 책에서 구조적으로 주어지는 보편적 문제를 생애 전반에서 자신의 시민으로서의 삶의 일부로 경험하고 이를 현실적 물음²⁾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양은아, 2010).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공부와 되”는 것이다(문탁네트워크 홈페이지, 2014).

구체적 경험이든 추상적 지식이든 일상과 시민교육을 연계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

2) 문탁네트워크의 2013년 인문학축제 자료집에는 자신의 삶의 문제를 인문학 학습을 통해 직면하고 해결해 나간 수많은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예컨대 199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던 사람이 맹자를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웃(가깝게는 문탁 회원, 멀게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참여 할머니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였다(문탁네트워크, 2013 참조).

의 일상화'는 모든 교육은 가능한 한 일상으로부터 떨어져야 한다는 '교과 중심의 교육론'(이흥우, 1991)과 다르다. 또한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교육내용 안에 학문을 포함하기에 객관적 지식보다 경험, 문화, 상황 등을 중시하는 '경험학습, 문화학습, 상황학습'과도 구별된다. 한편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학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전개되는 교육 및 학습활동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유사하나, 학습 공간을 단지 교육제도에 한정하지 않고 일상세계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또한 일상 안에서의 시민성 학습을 국가나 자본과 같은 외적 힘에 의존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는 학습자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제도화와 구별된다. 또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학습과 일상의 연계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생활화'와 유사하나, 시민교육과 일상의 연계성을 실용주의적 관점이 아닌 존재론적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서 시민교육의 생활화와 구별된다.

요컨대, 시민교육의 일상화란 시민교육의 핵심인 시민성을 제도화된 교육기관에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특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가르치려 하기보다,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나 마을이나 교회나 공공기관이나 군대나 그 어디든 일상생활 안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구체적인 일상의 삶을 소재로 동료들과 함께 비판적 성찰이나 실천적 참여를 통해 시민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나. 시민교육 일상화의 필요성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요청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지 않은 시민교육의 기획에도 불구하고 시민성 관련 체계적 지식을 담은 프로그램(예, 시민창조리더십 아카데미 등)만으로는 시민들을 교육 프로그램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아무리 좋은 내용과 강사진을 준비하더라도 학습자가 찾아 주지 않으면 헛수고에 그치고 만다.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요청되는 첫 번째 이유다.

둘째, 학습자가 단기적이든 정기적이든 어떤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했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수료 후 학습한 내용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 같은 시민교육을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기 곤란하다. 예컨대 학습자가 노동, 인권, 평화, 여성, 다문화주의, 신자유주의 등을 새롭게 인식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학습한 내용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배웠다고, 달라졌다고 말할 수 없다. 시민교육이 사람의 머리를 변화시키는 데만 머물고 손끝과 발끝까지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민교육은 학습자의 생각만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요청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셋째, 시민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삶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없다. 같은 내용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학습자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실 학습자는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학습 장면에 다가간다. 예컨대 어떤 학습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농사를 경험했던 사람인 반면에 어떤 학습자는 농사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 출신이다. 어떤 학습자는 은퇴를 앞 둔 화이트 칼라인 반면에 어떤 학습자는 전업 주부이다. 어떤 이는 베드 타운 기능만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거주하지만 어떤 이는 이웃간 소통이 빈번한 작은 마을의 단독 주택에 산다. 이처럼 한 교실이나 한 학습관 안에는 성장 배경이나 생활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시민교육을 포함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서든 교육 기획자는 학습자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의 고유하고도 구체적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사 및 동료 학습자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가운데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확장해 나가도록 도와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한 세 번째 이유이다.

넷째, 시민교육 장면에서 학습자의 맥락은 개별적이기도 하지만, 공통점도 지닌다. 학습자가 속한 집단에 따라, 학습자들은 그 소속 집단을 중심으로 생활세계를 공유한다. 예컨대 오늘날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엄마들끼리 공유하는 생활세계가 있고, 같은 딸기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공유하는 생활세계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유하는 생활세계가 있고 자영업자들의 생활세계가 있다. 동시에 엄마든, 농부든, 비정규직 노동자든, 자영업자든 이들 모두가 한 지역의 주민으로서 혹은 국민이나 세계시민으로 공유하는 생활세계도 존재한다. 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공유한 생활세계의 다양성과 중층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교육의 일상화가 필요한 네 번째 이유다.

2. 시민교육 일상화의 장애요인과 실현 조건

가. 시민교육 일상화의 장애요인

그동안 우리가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지 못한 데는, 일상 안에서 시민성을 포착하고 함양하지 못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의 체계가 우리의 일상 곧 ‘생활세계를 식민화’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장소의 정치’가 우리의 삶을 마을·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일상에서 소외시켰다. 서울 중심의 삶이 지방에서의 삶을, 심지어 서울에서조차 ‘강남에 산다’는 것이 ‘강북에 사는 것’을 지배했다. 일상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의 삶의 우선적 가치로 부각했던 것이다. 또한 일상 안에서 혈연, 학연, 지연 등을 통한 ‘포섭과 배제의 정치’가 일상 안에서 시민성 함양의 기회를 차단했다. 우리가 속한 조직 안에서 우리 앞에 놓인 현안을 두고 합리적 토론과 이성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집단이기주의의 망령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손과 발을 묶어 두었다. 뿐만 아니라 국가발전, 능력주의, 소비주의 혹은 사회변혁이나 인권 등 ‘거대담론의 명분’이 소소한 일상 안에서의 시민적 실천의 기회를 삼켜버렸다.

둘째, ‘프로그램 중심의 제도화된 교육관’이 시민교육을 특정 칸막이 안에 가두어 두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교육은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의도는 있으나 체계성이 덜한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도 이뤄진다. 다양한 시민참여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다.

나. 시민교육 일상화의 실현 조건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시키기 위한 조건을 교육 외적 측면과 교육 내적 측면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시민교육의 일상화 구현의 교육 외적 여건으로 ‘학습권’ 보장을 들 수 있다. 여기서 학습권이란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인격적, 지적, 기능적 향상을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할 권리와 아울러 기초교육에 참여할 권리”다. 학습권은 학습활동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 교육선택의 권리, 교육에 관한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권, 지식과 사상 창출의 자유 등을 구성요소로 포함한다(김신일, 2005).

한편 시민교육 일상화의 교육 내적 조건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교육의 기획자는 학습주체의 보편성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누구나 시민성 학습이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시민으로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학습에 참여할 수 있다. 성별, 연령, 직업, 문화적 배경,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민성을 학습할 수 있고, 또 시민성 학습의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생활세계의 식민화 상황에서 시민성 학습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시민성 학습에 의도적이고도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과 스타일을 모두 다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학습의 일상성을 구현하려면 “자기의 삶 ‘전체’를 걸고” 학습하는 사람이 모여야 한다. “치열하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동학과 도반”이 필요하다. 시민교육의 일상화 과정에서 ‘나 홀로’ 학습이란 있을 수 없다. 학습자 상호간 문제의식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책 읽기와 세상 읽기 혹은 글쓰기 등에 관여할 때 각자의 학습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문탁네트워크에서는 ‘세미나 시간 칼같이 지키기, 천재지변에 준하는 게 아니라면 결석하면 안 된다, 이해 안 되면 이해될 때까지 읽어라, 세미나 시간에는 텍스트에 집중해야 한다, 반드시 후기와 에세이를 써야 한다’는 규칙을 강조하였고, 서로의 글을 읽고 고치는 가운데 ‘공부가 늘었다’ ‘함께 공부한다’는 짜릿함을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고 있었다(이희경, 2013, pp.8-9).

둘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려면 교육의 과정의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교육의 과정을 중시한다. 한 번 가르치고 중단하는 ‘일회적 교육’을 경계한다. 교육의 연계성과 교육 결과의 지속성을 강조한다. 학습자가 한 번 배운 데서 한 수준 높은 것을 수직적으로 학습하거나 관련한 학습 내용을 수평적으로 찾아 나서도록 돕는다. 그 결과 이전 학습과 현 학습의 연계망(learning pathway)이 구축된다(McGivney, 1999). 간혹 일시적으로 배움을 중단한다 하더라도 배운 것을 일상 안에서 익히는 과정을 지속시킨다. 배운 것을 살아가게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존의 학습 내용을 벗어 던지는 탈학습(unlearning)을 하게 할지언정 무학습(non-learning)을 허용하지 않는다. 안주의 삶을 경계한다. 인문학 학습공동체를 이끌고 있는 이희경(2013)은 이렇게 표현한다.

“공부가 --- 부담스럽다는 태도는 ‘능력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기실 이것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돈벌이 혹은 가족 챙기기) 어느 것 하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무의식(습속)의 저항이다. --- 난 ‘불능(不能)’을 가장한 ‘불위(不爲)’의 이 태도야말로 우리 공부의 가장 큰 적이라고 생각한다.”(p.10)

한편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만사 제쳐두고 학습 활동을 지속하려는 학습자의 자율적 열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선전이나 선동, 교화나 통제에 의해 강요된 학습을 하지 않는다. 학습자는 조직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적 관계’에 놓여 있지 않다. 나아가 동료 학습자와도 인격적, 긍정적 교류 경험을 지닌다.

셋째, 시민교육의 결과로서 시민성 형성이 이뤄져야 한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교육의 결과를 돈이나 명성, 자격이나 권력 등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가치에서 찾지 않고, 일상생활세계에서 학습자 자신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하며,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고,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과 연대할 수 있는 시민성 형성에 주목한다. 교육의 가치를 성적, 학력, 자격 등의 사회경제적 가치 혹은 인적 자본이나 문화 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 등으로 교환하는 ‘상품화’와 구별한다. 교육의 일상화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자율성을 키우는 데 주목한다. 이른바 ‘체계’의 가치보다 ‘생활세계’의 가치를 지향한다(Habermas, 1990).

전통적인 교과학습 중심 교육론이 학문이나 예술 분야에서 수월성 추구를 중시하는데 비해,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소소한 일상 속에서 심지어 기계적이라고 여겨졌던 단순 노동이나 저급한 문화예술 활동 안에서조차 시민성 형성의 가능성을 발견한다. 또

경험중심 교육론이 실용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문제해결 능력의 고양을 중시하는 반면에, 시민교육의 일상화 담론은 경험중심 교육론과 마찬가지로 때론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출발하기도 하나, 때론 일상에 대한 존재론적, 비판적 성찰을 강조한다(English & Mayo, 2012).

3. 시민교육 일상화의 과제

우리 사회에서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 향후 남겨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성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개방적 검토가 요구된다. 강정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이나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과 같은 최근 우리나라 지역개발 반대운동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학습한 시민성에는 근대 시민계급이 절대 왕정의 봉건 질서에 대항해 보여주었던 자유민주주의적 시민성과는 다른 특수성이 녹아 있다(김민호, 2014). 국책 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가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한다 할지라도 국민의 생존권과 인권을 무시할 경우 이에 저항할 권리, 근대 합리적 개인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곤란한 마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계승해 온 끈끈한 공동체 정신, 마을 혹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연대, 가부장적 질서를 넘어선 여성들의 주체적 참여 등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의 가정에서 부부관계, 부모 자녀관계, 형제 관계,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 등을 성찰할 때 우리 사회에서 가족 구성원의 시민성은 서구의 가정과는 달리 우리의 가족문화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우리 스스로가 서구적 시각의 ‘오리엔탈리즘’을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시민성과 인권을 상호보완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인권 교육과 시민성 교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시민성을 배제한 채 인권 교육에만 치중한다던지, 인권을 배제한 시민성 교육에만 치중할 경우 편향성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교사와 학생 간 교육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거나, 비정규직 노동자나 세월호 희생자(유족)의 인권을 간과한 채 공공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은 시민교육의 일상화에서 모두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알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만이 아니라 사업주, 공무원, 청소년 기관 종사자를 교육 대상에 포함시켜 이른바 일터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한다.

둘째, 시민교육의 공간 마련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시민교육 진전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가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려면 즉각적인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천천히 확실하게 다녀나가야 한다. 이미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 권력과 자본이 주도하는 제도교육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선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쉽게 좌절할 수 있다. 특히 우리는 국가권력이나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교육센터와 같은 교육공간을 우선 확보한 뒤 그 안에서 자율적인 힘을 발휘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쉽다. 그러나 이처럼 교육공간을 우선시 하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는 권력의 공간들을 독점하고 모든 것을 현재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가 될 수 있다. 그 결과 ‘시민교육의 일상화’ 구현의 과정을 고착시켜 그것의 진전을 가로막게 된다. 오히려 ‘시간은 공간보다 위대하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p.174)는 원칙 아래 공간들의 장악보다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한 단계 한 단계 진전시켜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진정 필요한 것은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려는 새로운 진전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고, 그 과정들이 열매를 맺도록 다른 교육자들이나 단체들과 함께 하는 활동하는 것이다.

‘누구나 가르칠 수 있으며, 어디나 강의실이 된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은대학’은 2009년 서울 마포에서 시작했다. 마을 주민들이 자신의 인생과 경험에서 쌓인 아주 사소한 재능들을 교육내용으로 삼아 누구나 가르칠 수 있고, 주민의 삶터를 강의실이자 배움터로 삼았다.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 앞 세대와 뒤 세대가 만나고, 마을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기성세대의 지혜를 배우며 관계망을 형성했다. 나아가 청년들은 지역의 문젯거리, 놀거리를 자신의 일거리로 만들어 갔다. 그런데 ‘○○은대학’이 마을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특이했다. 공동체를 지향하지 않고 ‘공동되기’를 추구했다. 공동체라는 목적을 갖게 되는 순간 공동체는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폐쇄성과 배타성을 갖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대신 ‘○○은대학’은 사람들이 만났다 헤어지고 또 다른 계기로 만나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지향한다. 실제로 6개의 ‘○○은대학’의 모체인 ‘○○은대학연구소’는 2014년 공식적으로 해산했다. 이제 6개의 ‘○○은대학’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정경운, 2015).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교육의 공간 만들기보다 시민들의 시민성 향상이 더 중요하다.

셋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려면 시민교육과 다른 교육활동의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시민성 학습이 개인주의적 성향의 교양교육이나 문화예술 또는 직업능력개발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일치가 같등을 이긴다’는 원칙 아래 ‘같등을 기꺼이 받아들여 해결하고, 이를 새로운 전진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pp. 176-177). 시민교육과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직업능력개발 등의 친교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인문학 학습공동체에서 시민교육의 일상성을 발견할 수 있다. ‘문탁(問琢)네트워크’는 2009년 9월 경기도 용인시 어느 아파트 단지의 주부 9명이 가정집 거실에 모여 일리히(I. Illich) 책을 읽기 시작하며 출발했다. 회원들이 ‘꾸역꾸역’ 살아가기보다 자신의 ‘화두’를 갖고 용맹정진의 자세로 ‘뺨세계 공부’하길 기대했

고, 대표자 자신이 튜터가 되어 회원들의 공부를 도왔다. 5년이 지난 지금 국가나 자본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인문학 학습 공간, 마을 작업장, 마을 공유지 등을 포함해 150평의 공유지를 확보했고, 매주 100명 정도가 주 1회 방문하며, 연 2억7천여만 원의 예산 규모(2013년 말 기준)로 성장했다(대표자 이희경과 면담, 2014. 12. 23). 문탁네트워크 학습은 삶의 현실과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 회원 중에는 역대급 연봉을 받으며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일하다가,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명확해지는 암울한 미래의 모습 때문에 퇴직해버린 40대 초반의 어느 전문연구원이 있다(뿔 옹, 2013).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공부는 ‘놀이’나 ‘취미’처럼 보일지 모르나 그에게는 ‘생존’이며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토론장’이고 ‘생활의 터전’이다. 그러나 그는 생계유지를 위해 문탁네트워크 내 마을교사로 일하며 경제적 자립을 모색해야 했다. 또 회원 중에는 문탁네트워크에서 다섯 가지 일 - 중학생들과 책을 읽는 프로그램 이끄미, 문탁 웹진 ‘틈’ 편집진, 월든³⁾ 더치커피 운영자, 자누리 화장품 일꾼, 파지사유⁴⁾ 화요일 부매니저 -을 하면서 월 50만원에서 60만원을 벌며 공부하는 미혼 여성도 있다. 그녀는 현재 자신의 마이너스 경제를 고민하면서 소비를 더 줄이거나 장차 공부해서 자립하는 길을 꿈꾸고 있다(문탁네트워크, 2013). 또 문탁네트워크 학습에는 개인과 사회 간 긴장이 존재한다. 회원 중에는 1990년대 대학을 다녔고 학생운동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던 사람이 『맹자(孟子)』를 읽으면서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이웃(가깝게는 문탁 회원, 멀게는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 참여 할머니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존재성을 성찰하였다. 또 회원들은 2012년 9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를 계기로 밀양의 송전탑 반대운동 주민,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재능교육 노동자 등 우리나라의 삶 곳곳에서 ‘데모스’를 찾아 나선 적이 있다. 그 중 밀양과의 인연은 특이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이 보낸 이메일 한 개, 밀양 할머니들의 손 글씨 편지와 작은 선물이 회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문탁 회원들은 이후 밀양 사태와 관련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통적인 것’을 조직화하는 민주적 과정에서 자신의 특이성을 잃지 않으면서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는 다종의 능력을 키워 나갔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용인시 인근 전철역에서 밀양 송전탑 반대운동에 동참하는 일인 시위를 이어갔다. 사실 문탁의 모든 회원들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아니었다. 다양한 사건과의 마주침 속에서 ‘공감과 민감함’을 불러일으키는 지점을 찾아냈던 것이 관건이었다(공세알, 2014). 문탁 회

3) 문탁네트워크의 목공작업장 공동체의 이름이 월든이다. 50평 정도의 규모로 인문학 공간 문탁 아래층(1층)에 자리하고 있다.

4) 문탁네트워크가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874-6번지에 번지수를 발음하여 마련한 공간이름(破之思惟, 破之私有, 破之事由)으로서 카페, 주방, 세미나실, 갤러리 틈, 작업실 등을 갖추고 있는 50평 규모의 공간이다. 파지사유는 “익숙한 습속과 사유를 깨뜨리고, 모든 것에 울타리를 돌려 사사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구조와 관념을 깨뜨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믿는 사물의 근거를 다시 한 번 질문한다는 뜻”이다(문탁네트워크 리플릿 중에서).

원들은 밀양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외적 연대와 내적 성장의 더 큰 순환구조’(무담, 2014)를 만들었다.

넷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추구할 때 지역적 맥락을 유지하면서 보편적 맥락에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는 지역, 국가 및 세계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중정체성을 요구받고 있다. 지난 5월 인천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도 ‘세계시민교육’을 전 세계가 향후 15년간 추진해야 할 교육 의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 때 권력과 권위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바람직한지 문제가 생긴다. 세계시민과 지역시민 중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 권력과 권위를 두고 세계 사회, 국가, 지역사회, 가정 혹은 학교 간 적대적 경쟁을 하기 때문이다(Heater, 2004: 329). 사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또한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합보다도 더 크다’(프란치스코 교황, 2014, p.181).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보존한 채, 공동체에 진심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이 되는 게 마땅하다. 다만 공동체 모형을 모든 부분들이 중심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구체(球體)로 상정해서는 곤란하다. 이 경우 각 부분들 간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게 되고, 지역시민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각 부분의 고유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지역시민의 정체성이 살아나야 한다. 그 결과 공동체는 다면체(多面體) 형상을 띠어야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과 제주에 거주하는 시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자 세계시민이긴 하더라도 각각 서울 시민, 제주 시민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과 지역사회 여건에 따른 시민적 권리와 책무를 감당해야 한다. 이 점에 비추어 각 지역의 전통 문화 속에 남아 공동체성(예컨대, 제주 어느 마을에서는 매월 첫 일요일 마을 주민 모두가 함께 모여 밥을 먹고, 매년 어버이날에는 자손들이 고향을 방문해 고향 어르신께 음식을 대접하는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자연 친화적 지혜를 발견하고 유지 발전시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평생교육 실무자들의 시민교육의 일상화에 대한 의식과 역량, 영성을 길러야 한다. 평생교육 실무자들이 업무 범위 내에서 시민교육의 여건을 점검하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며, 나아가 실천하기 위한 힘을 기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시민교육을 프로그램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관장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장해서 접근하겠다는 목적의식이 요구된다. 한마디로 시민교육에 대한 교육적 의도성을 갖는 것이다. 학습관에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서 학습자에게 일회용 컵의 사용을 자제하고 학습자 용 컵을 지참할 것을 요구한다든지, 교육시설의 전기와 수도 사용 등에 대한 환경 보전 차원의 안내를 한다든지, 학습관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을 친환경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의식주 생활 전

반을 시민교육, 시민성 학습의 맥락에서 성찰하도록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 속에서 착한 소비를 권장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학습자를 계몽의 대상으로 ‘대상화’해서는 곤란하다. 일방적인 교화나 주입이어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자율적이고 비판적인 질문과 해답 찾기 과정을 도와야 할 것이다. 여기서 평생교육 실무자로서 전문적 역량이 요구된다. 특별히 시민성에 대한 이해와 시민성을 함양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을 익혀야 할 것이다. 예컨대 시민성 함양과 연관된 토론학습, 협동학습, 참여연구 방법 등을 익혀두는 게 좋겠다.

나아가 평생교육 실무자의 영성(spirituality)⁵⁾ 개발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Kim, 2015).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인간에 대한 존중과 연대성을 바탕으로 기존 사회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실천적 과정이다. 그만큼 해당 사회의 지배적 헤게모니로부터 도전받기 쉽다. 평생교육 실무자로서 사회에 대한 사회적 영성, 학습자에 대한 ‘청지기 영성’(stewardship) 없이는 자신의 일을 지속해 내기 어렵다. 적지 않은 일들에 치여 스스로의 영혼을 소진하고 만다. 평생교육 실무자로서 자신의 사회적 영성과 청지기 영성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갈 때 시민교육의 일상화는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다.

IV. 결론

이 글에서 필자는 시민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를 꽃 피우고 시민사회를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각자의 시민성 함양이 필요한데, 사회 구성원의 시민성 함양은 단지 시민교육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전체를 시민성의 맥락에서 재조명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현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시민교육을 지원하는 행·재정적 요인 못지않

5) 영성은 성인교육에서 세 가지 서로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다. 첫째, 종교적 의미이다. 여기서는 영성을 어떤 보다 큰 힘, 우주 내의 신적 존재와의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대분의 영성 개념이 여기에 속한다. 종교집단은 어떤 영성을 지지하고 기르는 특정 의식과 전통의 보유자들이다. 그러나 종교집단은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영혼의 식민자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서구사회는 제도화된 종교와 영성을 분명하게 구분한다. 둘째, 인간적 의미이다. 영성을 우리의 삶에서 의미나 목적을 찾는 것, 곧 인격적 성장의 수단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성에 대한 인간주의적이고 개인 발달 중심의 접근이다. 1970년 노울즈의 안드라고지에 나타난 인간주의와 연결된다. 인간주의 교육, 총체적 교육, 전인 교육 등과 연결된다. 셋째, 사회적 의미이다. 여기서 영성이란 세상을 변화시키고 돌보는 교육으로 뻗어 나아가는 지속적인 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 환경교육, 조직학습 등에 관심을 갖는 성인교육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영성이다. 이 영성은 성인교육자를 사회정의와 시민사회에 초점을 둔 공적 영역으로 이끈다. 세 번째의 영성은 첫째와 둘째의 영성 없이는 곧 사라지고 만다. 그만큼 영성의 위 세 가지 측면은 상호 보완적이다(English & Mayo, 2012: 181-182).

게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평생교육계 내부에 널리 퍼져있지 않고, 또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호 사건은 우리 평생교육 관계자들을 시민교육 현장으로 불러내고 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시민성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니 이미 전통 사회의 관습을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폐해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몸짓들이 시작되었다. 평생교육계가 삶의 현장을 뒤쫓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시민성 함양의 실천 사례들을 평생교육 제도의 틀 안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과 평생교육계의 시민성 함양 노력을 평생교육학자들이 맨 뒤에서 관찰하며 따라가고 있는 국면이다.

다만 필자는 시민교육에 관심을 지닌 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 및 시민교육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물을 근거로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자 했다. 왜 시민교육을 일상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시민교육을 일상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할 때 요청되는 개념적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민교육의 일상화를 실천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소개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발전 방안을 이하 ‘시민교육 연구모임’ 동료들의 발표에서 제시될 것이다. 앞으로도 평생교육 현장의 여러 관계자들과 학자들이 함께 손잡고 지역사회 여건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모형과 이론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애(2006). 공동경험 구성과정에 나타난 경험학습의 특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김민호(2014). 지역개발 반대 운동에 참여한 지역주민의 시민성 학습: 밀양 송전탑과 강정 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례. 평생교육학연구. 20(4), 1-30.
- 김민호(2015). ‘학습의 일상성’ 구현: 장애요인과 기본원칙. 평생학습사회연구. 11(1), 1-26.
- 김신일(2005). 학습권론의 형성과 전개. 김신일·박부권(편저). 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39-60.
- 무 답(2014). 공동체, 연대 속의 공통적인 것을 위하여. 문탁네트워크(편).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라! (2014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pp. 23-27). 용인: 문탁네트워크.
- 문탁네트워크(편)(2013). 공부, 요~물! 들었다, 냐다, 들었다, 냐다. (2013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용인: 문탁네트워크.
- 문탁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www.moontaknet.com> (검색일 : 2014. 12. 23)

- 민문식, 임형택(2015). 평생학습과 마을 공동체의 연계 가능성과 사례. 한국평생교육학회. 마을, 공동체, 평생학습(2015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제2회 학술포럼, 2015.5.30, 광주대학교, pp. 33-55.)
- 변종현(2014). 시민교육의 성찰. 제주: 제주대학교출판부.
- 뽕 옹(2013). 공부, 남자를 구하다. 문탁네트워크(편). 공부, 요~물!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2013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pp. 46-52). 용인: 문탁네트워크.
- 송호근(2015). 나는 시민인가. 서울: 문학동네.
- 양은아(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서울: 학지사.
- 오문환(1999). 시민사회의 사상 - 시민정부, 부르주아, 공공영역 -. 이신행 외. 시민사회운동 - 이론적 배경과 국제적 사례-. 서울: 법문사, 17-45.
- 이경아(2014). 직장성인의 SNS소통경험을 통한 학습의 일상성. 박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이지혜, 위영은(2013). 비문해자 학습의 일상성: 그들은 어떻게 문자세계를 극복하는가. 평생교육학연구, 19(4), 51-78.
- 이흥우(1991). 교육의 목적과 난점 (제5판). 서울: 교육과학사.
- 이희경(2013). 문탁 네트워크와 공부. 문탁네트워크(편). 공부, 요~물! 들었다, 났다, 들었다, 났다. (2013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pp. 8-11). 용인: 문탁네트워크.
- 임혁백(1993). 민주화 시대의 국가-시민사회 관계의 틀 모색 - 국가, 시장, 민주주의. 최장집, 임현진 (공편). 시민사회의 도전 - 한국 민주화와 국가. 자본. 노동. 서울: 나남, 77-106.
- 정경운(2015). 마을과 새로운 배움의 공동체의 가능성: 문화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평생교육학회. 마을, 공동체, 평생학습(2015년 한국평생교육학회 제2회 학술포럼, 2015.5.30, 광주대학교, pp., 1-18)
- 조용환 외(20110). 문화와 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최장집(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 2판). 서울: 후마니타스.
- 콩세알(2014). 연대, 우리들의 커뮤니티즘. 문탁네트워크(편). 공통적인 것을 구성하라! (2014 문탁네트워크 인문학축제 자료집, pp. 28-34). 용인: 문탁네트워크.
- 프란치스코 교황(2014). 복음의 기쁨 (현대 세계의 복음선포에 관한 교황 권고).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한국일보 2014.10.24
- English, L. M. & Mayo, P. (2012). Spirituality and adult education. In L. M. English & P. Mayo. Learning with adults : A critical pedagogical introduction(pp. 179-187). Rotterdam: Sense Publishers.
- Habermas, J.(1990). Strukturwandel der Öffentlichkeit: Untersuchungen zu einer Kategorie der bürgerlichen Gesellschaft. Frankfurt: Suhrkamp Verlag. 한승완(역). 공론장의 구조변동: 부르주아 사회의 한 범주에 관한 연구. 서울: 나남.
- Heater, D.(2004). Citizenship : the civic ideal in world history, politics and education. (third edition).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Johnston, R.(2006). Adult learning for citizenship, In Jarvis, P.(ed.). From adult education

- to learning society (pp. 408-428). London: Routledge.
- Heater, D.(2007). A history of education for citizenship. London: Routledge. 김해성(윌 김)(2007). 시민교육의 역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 Kim, M. H. (2015). A spiritual transition from 'rentership' to 'stewardship' :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staff development at a worker center in L.A.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11(2), 339-372.
- Lave, J. & Wenger, E.(2010). 상황 학습: 합법적 주변 참여(손민호 역). 서울: 강현출판사. (원저는 1991년 출간)
- McGivney, V. (1999). Informal learning in the community : a trigger for change and development. Leicester: NIACE.

주제발제 1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본
시민교육

‘시민교육에 관한 평생교육 담당자 의식조사’ 결과 현장의 목소리로 들어본 시민교육

박현규 · 서울생명의전화 교육실장

I. 들어가며

최근 들어 평생교육 연구 및 실천 영역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시민교육과 관련된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어볼 기회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우리사회 평생교육 최전선의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시민교육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그들이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의 시민교육 운영 현황은 어떠한지 등에 대하여 소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번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의 내용에는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시민교육 참여 경험 및 방법,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운영 여부, 내용 및 방법,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인식 등이 포함되었다. 설문조사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 담당자에게 온라인으로 전달하여 지난 2015년 4월16일부터 5월 1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203명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참여하였다.

설문내용: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시민교육 참여 경험 및 방법,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등

설문대상: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평생교육 담당자

설문방법: 온라인 설문

기간: 2015년 4월 16일~5월 10일

응답자 수: 총 203명

본 조사에 참여한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응답자 특성

(n=203)

구 분		빈도(명)	백분율(100%)	누적백분율(100%)
성별	남자	58	28.6	28.6
	여자	145	71.4	100.0
연령별	20대	16	7.9	7.9
	30대	82	40.4	48.3
	40대	70	34.5	82.8
	50대 이상	35	17.2	100.0
근무 지역	광역지자체	24	11.8	11.8
	기초지자체 (시·군·구)	179	88.2	100.0
평생교육 관련 동종 업무 경력	3년 미만	46	22.7	22.7
	3~5년	42	20.7	43.3
	6~10년	63	31.0	74.4
	11년 이상	52	25.6	100.0

Ⅱ. 머물며 : 시민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

1.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생각하는 시민교육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시민교육을 ‘일상생활에서 시민성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38.9%)’,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27.6%)’, ‘공공질서 의식함양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15.3%)’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다.
- 기타 응답으로는 ‘개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공공질서 의식함양과 일상생활에서 시민성과 인권의식 함양 교육’ 등이 있다.
-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 참여 경험, 그리고 근무 기관에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험 유무에 따라서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및 실천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인식

Q_01 : 귀하는 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56	27.6	27.6
② 정치·경제·환경·여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교육	20	9.9	37.4
③ 공공질서 의식함양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31	15.3	52.7
④ 일상생활에서 시민성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79	38.9	91.6
⑤ 민주주의 정치 참여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	9	4.4	96.1
⑥ 기타	8	3.9	100.0
합계	203	100.0	

2.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60.6%)’, ‘필요하다(31.0%)’라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필요성 인식

Q_02 : 귀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백분율(100%)	누적백분율 (100%)
① 전혀 필요 없다	2	1.0	1.0
② 필요 없다	1	0.5	1.5
③ 보통이다	14	6.9	8.4
④ 필요하다	63	31.0	39.4
⑤ 매우 필요하다	123	60.6	100.0
합계	203	100.0	

3.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참여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시민교육 참여 경험 유무와 관련하여, ‘있다(74.4%)’, ‘없다(25.6%)’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특히, 20대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시민교육 참여 경험 유무가 동일(각 50%)하게 나타났다.
- 시민교육 참여경험의 유형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 참여경험이 과연 그들이 종사하는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해볼 필요성이 있다.

<표 4>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참여 유무

Q_03 : 귀하는 시민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빈도(명)	백분율(100%)	누적백분율(100%)
① 있다	151	74.4	74.4
② 없다	52	25.6	100.0
합계	203	100.0	

4.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 범주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최근 자신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 참여 양상에 대해 ‘생활 속에서 시민정신 실현(40.9%)’, ‘외부의 시민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참여(20.7%)’,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14.3%)’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기타 응답으로는 ‘꾸준히 시민교육 관련 기사나 정보를 알림서비스를 통해 제공받고 읽는다’, ‘독서’,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생활문화예술’, ‘시민대상 미디어교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평생교육 진행’ 등이 있다.
-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 참여는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담당자들을 위한 시민교육 관련 전문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각종 연수, 워크숍 등에서 시민교육에 관한 부분을 내용 또는 방법의 측면에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표 5>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관련 활동 범주

Q_04 :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생활 속에서 시민정신 실현(예-공공질서 준수 등)	83	40.9	40.9
② 외부의 시민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참여	42	20.7	61.6
③ 시민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참여	16	7.9	69.5
④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참여	27	13.3	82.8
⑤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	29	14.3	97.0
⑥ 기타	6	3.0	100.0
합계	203	100.0	

5.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해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이다(39.4%)’, ‘모든 평생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으며, 시민교육 고유의 지향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37.4%)’, ‘모든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이다(18.2%)’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특히 20대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든 평생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으며, 시민교육 고유의 지향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라는 응답이 높았다.
- 기타 응답으로는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의 일부이다’,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등이 있다.
-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수준의 높낮음이나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 둘 간의 관계를 맺어주거나 분리해주는 요인들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표 6>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한 인식

Q_05 : 귀하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모든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이다	37	18.2	18.2
② 모든 평생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으며, 시민교육 고유의 지향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76	37.4	55.7
③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완전히 별개이다	2	1.0	56.7
④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이다	80	39.4	96.1
⑤ 기타	8	3.9	100.0
합계	203	100.0	

6.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을 위한 노력

- 평생교육기관들은 현재 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21.6%)’, ‘정기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1.0%)’, ‘단기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20.5%)’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기타 응답으로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은 관련 없음’, ‘학부모 역량강화 연수’ 등이 있다.
- 평생교육기관들의 시민교육을 위한 실천 노력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하여 시민교육 홍보 및 캠페인, 시민교육 리더 양성, 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양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표 7>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민교육을 위한 노력

Q_06 : 귀 기관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① 정기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74	21.0	36.5
② 단기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72	20.5	35.5
③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76	21.6	37.4
④ 정기/비정기적인 시민교육 관련 학습모임 운영 및 지원	65	18.5	32.0
⑤ 직원을 위한 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제공	31	8.8	15.3
⑥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31	8.8	15.3
⑦ 기타	3	0.9	1.5
합계	352	100.0	173.4

7.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운영 여부

- 평생교육 담당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1.4%).
-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지만, 그것의 운영 전략 및 방법, 평생교육담당자들의 운영 마인드, 그리고 학습자 상담, 운영 매뉴얼 유무 등에 따라서 시민교육 운영의 수준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시민교육 운영 유무

Q_07 : 현재 귀 기관이 운영하는 시민교육이 있습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있다	145	71.4	71.4
② 없다	58	28.6	100.0
합계	203	100.0	

7-1)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 시민교육의 비중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 시민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5% 이하(35.9%)'가 가장 많았으며, '21% 이상(24.8%)', '6~10%(22.8%)'의 순으로 나타났다.
-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 중 표면적으로 시민교육이라는 제목 또는 주제가 있는 프로그램들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교수학습과정 속에서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표 9>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 시민교육의 비중

Q_07_1 : 만약 있다면, 귀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교육은 전체 프로그램들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5% 이하	52	35.9	36.6
② 6~10%	33	22.8	59.9
③ 11~20%	21	14.5	74.6
④ 21% 이상	36	24.8	100.0
무응답	3	2.1	
합계	145	100.0	

7-2)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내용

- 평생교육기관들은 현재 ‘시민문화 또는 시민의식(39.3%)’,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 해결 능력(29.0%)’, ‘인권·노동·환경·평화 등 사회적 의제(15.2%)’ 등의 내용으로 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 기타 응답으로는 ‘동아리 활동 지원’, ‘모두 다 해당’, ‘부모교육’, ‘사회적 의제’, ‘지역사회 현안’, ‘시민의 평생학습욕구 해소’, ‘시민활동가 양성’, ‘일상생활의 시민성’, ‘평생교육’ 등이 있다.
- 향후 연구자와 실천가들이 포함된 평생교육 및 시민교육 관계자들이 협력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시민교육프로그램(공통 및 선택)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표 10>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내용

Q_07_2 : 만약 있다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민주주의의 의미, 역사 등 기초 지식	6	4.1	4.4
② 시민문화 또는 시민의식	57	39.3	46.3
③ 인권, 노동, 환경, 평화 등 사회적 의제	22	15.2	62.5
④ 지역사회 현안과 문제해결능력	42	29.0	93.4
⑤ 기타	9	6.2	100.0
무응답	9	6.2	
합계	145	100.0	

7-3)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방법

- 평생교육기관들은 주로 ‘정기적(29.0%) 및 단기성(29.0%)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의 방식으로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공동체, 학습동아리, 자원봉사 등 지역주민 및 학습자 중심의 시민교육 운영 방식도 나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5.2%).
- 기타 응답으로는 ‘모두 해당’, ‘아카데미 등 필요시 시민강좌 운영’ 등이 있다.
- 대부분의 평생교육기관들은 시민교육을 강의식 프로그램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효과적인 시민교육 운영을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민교육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1>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방법

Q_07_3 : 만약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빈도 (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정기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2	29.0	30.0
② 단기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42	29.0	60.0
③ 학습동아리 등의 자조학습기회 제공	13	9.0	69.3
④ 자원봉사, 캠페인, 이벤트 운영 등의 시민참여 활동 기회 제공	12	8.3	77.9
⑤ 지역공동체 및 마을 활동	26	17.9	96.4
⑥ 기타	5	3.4	100.0
무응답	5	3.4	
합계	145	100.0	

8.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20.5%)’, ‘시민의 요구 부족(19.3%)’, ‘인력 및 예산 부족(16.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남성은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여성은 ‘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 20대 및 30대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시민의 요구 부족’, 40대 이상의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답했다.
- 3년 미만의 경력자들은 다른 경력자들에 비해서 ‘인력 및 예산 부족’을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했다.
- 기타 응답으로는 ‘시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오해’, ‘시민교육을 평생교육의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 ‘교수법의 문제’, ‘마을단위의 대표운영진의 기획 및 운영 능력 부족’, ‘활성화되고 있다고 봄’ 등이 있다.
-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요구조사 실시, 그리고 기관 내에서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공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평생교육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2>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Q_08 :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지금까지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3개를 선택해주세요.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분위기	28	5.6	13.8
② 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부족	102	20.5	50.2
③ 기관장의 의지 부족	28	5.6	13.8
④ 담당자의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49	9.9	24.1
⑤ 시민의 요구 부족	96	19.3	47.3
⑥ 역량 있는 시민교육 강사 부족	52	10.5	25.6
⑦ 인력 및 예산 부족	82	16.5	40.4
⑧ 기획 및 운영 능력 부족	50	10.1	24.6
⑨ 기타	10	2.0	4.9
합계	497	100.0	244.8

9. 향후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향후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매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47.3%),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38.4%)').
-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절대적인 공감은 현장에서는 실제 시민교육 운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또는 전개되지 못하는 지에 대한 배경 및 과정을 연구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표 13> 향후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의 필요성

Q_09 : 귀하는 향후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명)	백분율 (100%)	누적백분율 (100%)
① 전혀 활성화될 필요가 없다	3	1.5	1.5
② 활성화될 필요가 없다	9	4.4	5.9
③ 보통이다	17	8.4	14.3
④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78	38.4	52.7
⑤ 매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96	47.3	100.0
합계	203	100.0	

10.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 평생교육 담당자들은 향후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보급(20.7%)’,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철학 및 가치 재정립(17.0%)’, 그리고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관심과 노력(16.8%)’ 등의 우선 과제가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기타 응답으로는 ‘시민교육에 대한 학교교육과정 강화’, ‘시민교육에 대한 주민의 관심 제고’, ‘시민의 참여의지’, ‘정부가 시민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책화하는 방법’,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대중성 확보’ 등이 있다.
-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기관의 노력, 평생교육 담당자의 역량, 그리고 개별 시민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의 측면만이 아니라 평생교육 영역 전체가 시민교육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표 14>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과제

Q_10 : 귀하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3개를 선택해주세요.

	빈도(명)	백분율(%)	케이스 백분율(%)
① 시민교육 관련 국가정책	70	12.2	34.5
②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관심과 노력	97	16.8	47.8
③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83	14.4	40.9
④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철학 및 가치 재정립	98	17.0	48.3
⑤ 교육 담당자의 마인드 전환 및 역량 함양	61	10.6	30.0
⑥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119	20.7	58.6
⑦ 다양한 시민교육 공부모임의 활성화	42	7.3	20.7
⑧ 기타	6	1.0	3.0
합계	576	100.0	283.7

Ⅲ. 나오며

본 평생교육 담당자의 시민교육 인식조사에서는 여건상 시민교육에 관한 평생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미약하게나마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 운영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향후 평생교육기관에서 시민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방향 및 전략 모색을 위한 기틀 마련의 밑거름을 제공하고, 나아가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평생교육 영역에서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정책, 예산, 시스템,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평생교육 담당자들의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 그리고 시민교육을 위한 역량 및 전문성 함양 등이 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시민교육에 관한 평생교육 담당자 의식 조사』

안녕하세요.

(가)시민교육연구모임에서는 시민교육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은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 민망할 정도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시민교육의 필요성 여부는 각자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그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진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먼저 들은 후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합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개최될(6월 10일, 수원시평생학습관) 시민교육 포럼을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귀한 시간 내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조사의 응답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 4.

(가)시민교육연구모임

문의: 수원시평생학습관 / 070-7727-6521

1. 귀하는 시민교육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
- ② 정치·경제·환경·여성 등 사회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교육
- ③ 공공질서 의식함양 등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교육
- ④ 일상생활에서 시민성과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 ⑤ 민주주의 정치 참여 지식과 기술에 관한 교육
- ⑥ 기타()

2. 귀하는 시민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 없다 ② 필요 없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

3. 귀하는 시민교육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시민교육 관련 활동의 범주는 무엇입니까?

- ① 생활 속에서 시민정신 실현(예-공공질서 준수 등)
- ② 외부의 시민교육 관련 연수, 워크숍 참여
- ③ 시민교육 관련 학습동아리 참여
- ④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참여
- ⑤ 특별히 하는 것이 없다
- ⑥ 기타()

5. 귀하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모든 평생교육은 시민교육이다
- ② 모든 평생교육을 시민교육으로 볼 수 없으며, 시민교육 고유의 지향과 가치가 있어야 한다.
- ③ 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은 완전히 별개이다
- ④ 시민교육은 평생교육 영역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제이다
- ⑤ 기타()

6. 귀 기관에서는 시민교육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하세요.

- ① 정기적인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② 단기성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③ 지역사회 시민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
- ④ 정기/비정기적인 시민교육 관련 학습모임 운영 및 지원
- ⑤ 직원을 위한 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 제공
- ⑥ 특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
- ⑦ 기타()

7. 현재 귀 기관이 운영하는 시민교육이 있습니까?

※ '있다'에 표시한 분은 7-1번으로, '없다'에 표시한 분은 8번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 ① 있다 ② 없다

10. 귀하는 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에서 3개를 선택해주세요.

- ① 시민교육 관련 국가정책
- ② 국가 및 지역평생교육진흥원의 관심과 노력
- ③ 지자체의 관심과 노력
- ④ 평생교육기관의 시민교육에 대한 철학 및 가치 재정립
- ⑤ 교육 담당자의 마인드 전환 및 역량 함양
- ⑥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⑦ 다양한 시민교육 공부모임의 활성화
- ⑧ 기타()

[개인 인적 사항]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대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현재 근무 지역

- ① 광역지자체 ② 기초지자체(시·군·구)

4. 평생교육 관련 동종 업무 경력 합산

-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10년 ④ 11년 이상

주제발제 2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 은평의 경험**

어떻게 시민이 되는가 : 은평의 경험

김미윤 · 은평구평생학습관장

I. 들어가며

시작은 일 년 전 세월호였다. 이 사건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었다. 많은 이들이 공동체성과 시민성의 부재를 말했다. 시민성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공동체에서 상식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고 지켜지는가? 시민들은 이런 가치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평생교육에서는 공동체와 시민이라는 주제에 대해 지금까지 어떻게 접근해왔으며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는가? 질문들이 잇따랐고 ‘시민교육’이라는 화두가 남았다.

시민의 개념은 계속 변해왔다. 근대 이후 시민의 개념은 “더 이상 소수의 특권 계층이 아니라 정치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는 보편적 지위로 점차 확대되어”(신진욱, 2013: 18)왔다. 현대에 들어서 “‘국가의 실패’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제3의 대안으로서 ‘시민사회’의 중요성이 강조”(신진욱, 2013: 76)되면서 시민은 “공동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 서로 관계 맺으며, 공동의 문제를 함께 숙의하고 해결하는 사람”이며,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의 존엄과 자유를 존중하며, 평등한 관계 속에서 타인과 연합하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가치와 행동방안을 만들어가는 사람”(신진욱, 2013: 14-16)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1990년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참여적 시민’이 확산”되고, “200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정착 과정에서 ‘지역사회 시민’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김민호, 2011: 205-206)되었다. 이처럼 시민사회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개념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해당 정치공동체가 어떻게 규정하느냐”(김민호, 2011: 193)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오늘날 공동체적 관점에서 ‘좋은 시민’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를 의미하는지, ‘좋은 시민’을 이루는 요소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좋은 시민’이 되어가는지를 밝히는 일은 시민교육의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내가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공동체적 관점에서 시민은 삶의 뿌리인 생활세계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시민’이므로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변화하면서 ‘시민이 되어가는지’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내는 작업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1)사람들이 어떤 계기로 지역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2)지역참여를 통해 얻은 개인적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지, (3)지역활동에서 무엇을 느끼고 배우며 변화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지역참여의 과정과 의미를 분석한 후, (4)이러한 과정이 ‘시민-되기’와 ‘시민공동체 형성’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밝혀보고자 한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되기’의 과정을 정리하는 이 작업을 통해 ‘시민’이라는 개념을 좀 더 현실감 있게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기획자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사회 시민학습자의 관점에서 시민교육의 지향과 실천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II.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1. 현장으로 들어가기

은평은 인구 50만이 조금 넘는 서울시의 자치구로, 민선 5기와 6기를 거치면서 소위 풀뿌리 시민사회의 활동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하였다.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비롯한 주민참여정책들과 적절히 연계되면서 그간 은평 시민사회 영역에서 고민해왔던 다양한 참여와 자치의 주요 의제들—사회적 경제, 생태, 문화예술, 복지, 교육, 아동청소년 등—을 주민들과의 호흡 속에 적극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중이다.

은평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10년 넘게 지역의 여러 기관, 단체들 간 네트워킹을 통해 활동의 기반을 다져왔다. 민선 5기 이후 참여예산 정책을 비롯한 민간참여 기회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시민사회 활동분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감당해오던 의제들을 공식적인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풀어나가는 경험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변화 속에서 주민들은 예전에 비해 교육, 복지, 주민자치 등 다양한 공적 영역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마을활동 영역을 중심

으로 많은 주민들과 단체, 기관들이 유입되고 있다. 평생교육 분야에서 은평은 지난 2012년 ‘은평, 마을이 되다’라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정책을 가지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은평이 축적한 풀뿌리 시민활동의 풍부한 경험과 평생교육을 통한 일반 주민들의 마을참여를 연계하여 주민들의 평생학습 기회와 경험을 계속적으로 확장해오고 있다.

2. 삶의 이야기에 주목하기

이 연구는 은평 주민들이 지역 활동을 통해 경험한 것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탐구하여 ‘시민-되기’의 과정을 밝히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서 내러티브 인터뷰 방법을 활용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활동 경험 속에서 의미 있는 전환의 순간을 이야기하도록 함으로써 개별적인 경험을 전체 삶의 맥락과 공동체 관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각각의 이야기들이 구성하는 삶을 총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지역 현장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사회적 교육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성찰할 수 있게 된다.

인터뷰 참여자는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지역에서 ‘시민-되기’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의 문제의식을 고려하여, 평생학습과 지역활동의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1그룹은 평생학습관 수강생으로 시작하여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으로 확장해나간 학습동아리 중 2개의 케이스를 선정하였고, 2그룹은 은평구 시민주도 평생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인 ‘숨은고수’로 활동하고 있는 4인의 마을강사를 선정하였다. 3그룹은 4050세대 지역주민들의 교육과 상담을 맡고 있는 길찾기활동가 2인을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4그룹은 시민운동 영역에서 시작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마을활동가 중 평생학습 분야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험을 가진 4인을 선정하였다(표 1 참조).

<표 1> 인터뷰 참여자의 그룹별, 개인별 특징

구분	참여자	연령대	참여자 특징과 주요활동	면담일
1.학습 동아리	P	40대	청소년학과 재학생, 졸업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아리 대표. 마을 청소년활동 및 교육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협동조합 전환.	2015.5.10
	K	40대	자격교육 수강생으로 시작한 놀이동아리 대표. 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받음.	2015.5.13
2.숨은 교수	N	70대	2기 숨은교수로 50대까지 전업주부이다가 복지관에서 바리스타 활동을 시작으로 자신의 경험을 청소년, 주민들과 나누고 있음	2015.5.15
	H	60대	1기 숨은교수로 경력단절 후 새롭게 시작한 공예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교육과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시니어사업 지원을 받고 있음.	2015.5.15
	D	50대	2015년 신규 숨은교수로 자서전쓰기 워크숍 수강을 계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 하모니카 재능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나누고 있음.	2015.5.07
	E	50대	정리컨설팅이라는 재능을 나누고자 자발적으로 숨은교수에 참여. 아트마켓 등 지역활동에 관심이 많음	2015.5.12
3.길찾기 활동가	Y	50대	40대 이후 자기계발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다가 길찾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 주민 상담가와 마을강사로 활동을 넓힘.	2015.5.14
	J	40대	인생후반기 준비를 하다가 길찾기 활동을 하게 되면서 지역을 알게 됨. 이후 지역축제 홍보위원회 등 활동을 넓히고 있음.	2015.5.14
4.시민 사회 활동가	L	50대	지역활동 경력 13년차. 도서관과 청소년을 주제로 활동해 왔으며 마을카페, 동네예술학교 등 주민들과 함께 하는 시도를 꾸준히 해옴.	2015.4.20
	K	50대	지역활동 경력 11년차. 오랜 시민단체 상근자 생활을 접고 청소년기관으로 옮겨 지역 아동청소년 네트워크 조직에 주력.	2015.4.22
	S	40대	시민단체 회원이며, 2014년 은평에 일터를 겸한 북카페를 열고 매거진 발간, 책읽기 모임, 수공예장터 기획 등 독립적인 마을활동 시작.	2015.4.23
	M	30대	지역에서 나고 자랐으며, 청소년기부터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접함. 졸업 후 사회복지사로 지역기관에 근무하며 마을활동에 적극 참여.	2015.4.17

인터뷰는 2015년 4월 17일부터 5월 15일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들이 모두 은평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지역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근무하는 직장, 활동하는 기관, 강의실과 같은 활동공간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참여자와 연구자는 그간 지역에서

함께 활동하여 충분한 라포형성이 되어 있는 관계였으므로, 사전에 각 참여자에게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개인별 1회의 1대 1 집중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참여자는 2인이 함께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다. 1회당 인터뷰 시간은 1시간 반 내외로 진행되었다.

인터뷰는 각 참여자가 지역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부터 구체적인 참여의 경험과 결과까지 지역활동과 관련된 자신의 삶과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경험에 질서를 부여 하는지, 각각의 경험을 어떤 의미로 해석하는지 충분히 듣고 담아내는데 집중하였다. 인터뷰 이후 내용분석은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1)지역활동 참여의 계기와 과정, (2)경험을 통한 변화, (3)변화의 의미라는 세 개의 범주로 정리하였고, 이를 통해 지역참여 활동 경험이 ‘시민-되기’ 또는 ‘시민사회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분석, 정리하였다.

Ⅲ. 지역 참여의 경험과 의미

1. 참여의 계기와 과정

인터뷰 참여자들이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계기와 과정은 각기 달랐으나, 참여의 목적과 욕구에 따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자기계발을 위해 교육수강을 하고 나서 후속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에 참여하게 된 경우, 두 번째는 평소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평생교육을 통해 본격적으로 기회를 얻어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 경우,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사회 진출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교육을 받고 진출의 발판으로서 관련 분야의 지역활동과 연계된 경우, 마지막으로 가벼운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의미를 찾고 본격적인 지역활동으로 이어진 경우이다.

(1) 첫 발 떼기 : 자기계발을 통한 새로운 도전

인터뷰 참여자들 중 많은 수가 이 유형에 속했다. 대개는 자기계발을 위해 관심 분야의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교육수강 이후 활동(봉사나 발표)를 통해 지역과 연계를 갖게 되고, 그 이후 지역활동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평생학습은 지역활동 입문의 계기로 작용한다.

“자격증을 따고 마지막 날 선생님께서 이게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그냥 종이가

된다. 자격을 뺏으면 모여서 무언가를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종이가 된다면서 활동하는 모임을 만들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이 있는 분 빼고 14명이 모여서 2013년 7월 20일에 저희동아리가 결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자 그랬죠.”(학습동아리의 시작. K, 40대)

“평생교육원에서 수업 들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의를 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죠. (중략)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담당부서에 계시던 분이 저한테 ‘어머니 교육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처음엔 못하겠다고 했는데 또 호기심이 생겨서 해보겠다고 말했다가 한 보름을 후회했어요. 망신당할까봐. 그 때 자식들이 도움을 주더라고요. 결국 첫 수업시간이 왔는데 너무 긴장되고 아무리 말을 해도 시간이 안가요. 결국 25분 얘기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다들 격려를 해줬어요. 25분 남 앞에서 얘기한 것도 대단한 거라고.”(마을강사로 데뷔하다. N, 70대)

(2) 적극적인 접속 : 지역에 대한 스스로의 관심을 좇아서

참여자 중에는 평소에 지역에서의 삶, 지역문제의 해결에 대해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교육을 매개로 관련 단체나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서 지역으로 활동영역을 확장하고, 이후 스스로 새로운 활동의 장(공간, 주제, 영역)을 만들어간 사례도 있었다. 지역으로 활동을 확장한 이후에도 학습은 여전히 병행된다.

“2002 월드컵 때요, 당시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난지도 쓰레기장에서 생태해설사, 에코가이드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서 자원활동가 교육을 받고, 에코가이드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는 쪽 시민교육을 했지요.”(시민활동가의 첫 시작. K, 50대)

“원래 지역에서 아이들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여기 평생학습관을 알게 되면서부터 시야가 넓어졌어요. 학습관에서 산새마을을 연결해 주셔서 저한테 굉장한 경험이 됐고,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씨앗학교도 알고, 자몽도 알고, 시민신문도 알고 지역에서 함께 할 사람들과 공간을 얻었죠.”(학습동아리의 시작. P, 40대)

“97년부터 여기서 살아오면서 지역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지역단체에 가입해서 꾸준히 한 거죠. (중략) 시민회 운영위원회는 6년째예요. 행사 참석하고, 도와주고. 활동을 하려면 끊임없이 공부가 필요한 거 같아요. 항상 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책 때문이었어요. 책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방향제시를 해주잖아요. 지역에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북카페를 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중략) 독서모임, 영상회를 통해 계속 공부하는 감을 유지하고 그러다가 또 일하고(하락).”(스스로 마을활동의 장을 열다. S, 40대)

(3) 꿈의 실현 : 목표한 사회적 성취를 위한 준비

한편으로는 사회적 성취를 염두에 두고 지역활동에 발을 디디게 된 경우도 있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을 위한 디딤돌로서 지역 내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이후 취업의 기회를 도모한다든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목표를 향한 징검다리의 의미로 지역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참여하게 된 현장에서 활동을 이어가면서 차츰 일자리를 위한 수단을 넘어서 지역활동 그 자체가 가진 의미를 깨닫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내가 자격증을 땀는데, 자격증만 땀다고 누가 나한테 와서 강사해주세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일을 하려면 나 스스로 지역하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첫 번째가 N 복지관이었어요. 그때 봉사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봉사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지. 나에게는 굉장히 낮은 단어였어요. 타고난 사람들만 하는 거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게 되니까 아, 너무 좋았어요. (중략) 그리고 나니까 생각지도 않게 마을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마을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마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이후에 하나하나 들여다보게 됐죠.”(지역봉사를 통해 마을에 접속. H, 60대)

“저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강의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더 나아가서는 책 읽어주는 할머니로 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거든요. 지금도 도서관에서 아이들 책 읽어주는 수업을 맡고 있어요. 길찾기활동을 시작하면서 강사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젊은 층들, 직장인들, 어르신들. 길찾기활동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새로우니까 도움이 돼요. 지금은 누리축제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고, 시간 날 때마다 다른 강의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어요. 강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더 알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강사에서 길찾기활동가로. J, 40대)

(4) 나누는 기쁨과 소속감 : 봉사를 통한 지역활동과의 연결

지역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봉사를 통해 지역 참여를 시작한 경우가 있다. 개인이든 동아리든 막연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나 배운 것을 나눠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봉사의 장에 참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본격적인 지역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많았다. 평생학습을 통해 교육봉사를 하게 되고 이것을 계기로 지역과 접속하는 사례이다.

“이 나이 즈음 되니까 사회에서 재능기부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리더라구요. (중략) 근데 제가 늘상 받기만 하던 사람이라 어디 가서 무언가를 준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어쩔까 하고 있는데 평생학습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숨은고수교실. 정말 스펙이 많은 사람이 아닌, 그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봉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많이 망설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관에 가서 스승 한번 구경을 해보고 왔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할 수 있을까 하고. 그리고 막상 집에 와서는 설레서 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해를 넘겼어요. 말이 그렇지 아무 경험도 없는 내가 정말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긴 이름도 학습관인데 뭔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담당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집에 와서 너무 설레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숨은고수로 데뷔하다. N, 70대)

“제가 정리 컨설턴트 직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각 가정마다 컨설팅을 다니면 의외로 물건에 대한 정리를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숨은고수를 하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진짜 저 같은 사람들한테 기회가 되는 거 같아요. 숨은고수가 되기 위해서 뮤지컬 수업도 들었어요. 남 앞에서 얘기를 하려면 내가 떨지 말아야 하니까. 은평구에서 제가 꽤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으로서 내가 소속된 곳에 어떤 도움을 주는 심정을 느끼고 싶은 거죠. 같이 공유하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거구요. 하다보니 이 동네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뭐가 많이 있고 할 일들도 많아요.”(재능을 나누기로 결심하다. E, 50대)

2. 경험을 통한 변화

지역과 관계를 맺으면서 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얻고 변화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일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시행착오를 통해 뼈저린 교훈을 얻기도 했다. 배움이 계기가 되어 시작한 지역참여는 이들에게 또 다른 배움을 주고 있었다. 기존에 가졌던 지역에 대한 협소한 생각의 틀을 깨도록 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기도 했다.

지역참여를 통해 참여자들은 ‘나’라는 존재가 살아 있다는 감각과 세상에 대한 시야가 넓어지는 희열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으며 공동체에서 스스로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면서 ‘지역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지역참여의 경험은 (1)지역 고유의 맥락 이해를 통한 인식의 확장, (2)개인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공적 시민감각 획득, (3)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감수성 체득, (4)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5)다양한 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연대하기라는 다섯 가지 변화 요소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시민-되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1) 지역의 맥락 이해를 통한 인식의 확장

참여자들은 경험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특징과 문화를 자세히 알게 된다. 은평구라는 동네에 대한 피상적인 인상에서 벗어나 지역을 다각도로 접하면서 숨겨진 사회적 맥락을 이해하고 재인식하며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장하고 있다.

“세상에 은평구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는데 여기가 이렇게 마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걸 2년 전에 처음 안 거예요. 대표를 한 1년 하면서 마을지원 사업이 뭐가 있고 어찌고 하는데 다 짬뽕이 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때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지금도 모르긴 한데, 전에는 그냥 동네 아줌마였고, 은평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었고 몰랐는데 이런 것(학습동아리)을 하면서 은평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커졌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라는 걸 알게 되었고(하락)…”(K, 40대)

“숨은고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 자신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죠. 좋은 생각을 가진 이웃들이 굉장히 많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라는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내가 정말 은평구민이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마을에 살고 있구나 이런 마음. 그 때 고병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교수님들도 마을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 걸 알았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거나 그런 거(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는 우리 마을은 뭐 내가 그냥 겉으로 보이는 마을의 모습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마을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중략) 내가 여기(학습관, 숨은고수)를 몰랐고 오지 않았다면 놓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학습관하고 인연을 맺은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죠. 그쪽에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봐요.”(E, 50대)

또한 지역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고유한 역사를 알게 되고, 공동체의 속성에 대한 사회문화적 이해가 깊어지게 된다. 지역공동체가 품고 있는 문화와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원하는 방향의 변화를 그려보고 스스로 실행할 구상을 하기도 한다.

“다른 데랑 비교는 안하고 이 동네를 알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아이들을 같이 기르고 즐겁게 살면 좋겠다 싶어요. 이런 걸 같이 할 청년 친구를 많이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같이 할 때 즐거운 일들이 더 많으니까 혼자보다는 다양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마을에서 만나고 싶고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같이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M, 30대)

“동네를 형성하는 흐름, 생각이 있고 중심이 되어 바꾸겠다는 몇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중략) 요즘 고민하는 것은 구산역하고 응암역하고 역촌역 세 지점 저 위에까지 기관, 카페, 식당들을 이어서 볼거리들을 만들어 내는 거예요. 살림(살림의료사회적협동조합)이 있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누군가 실천하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사람관계를 만들어내면 이뤄지는 거예요. 이게 동네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라 생각해요. 교육이 시민을 만드는데 중요하지만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어야죠.”(S, 40대)

(2) 개인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공적 시민감각 획득

지역참여의 경험은 참여자들의 시야를 확장시키고, 은평이라는 지역을 넘어 넓게 바라보는 열린 시민의식을 가지도록 만든다.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시민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공적 감각을 획득하게 되고 스스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좀 더 넓은 관점으로 고민하게 된다.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역 주민자치회랑 우리 동네 주민자치회 사람들이 다르거든요. 동네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사실 주

민자치회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성세대인데 자신들을 위한 이익활동은 거의 안 해요. 비교해보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이 딴 지역보다 덜 하다고 보거든요. 주민자치회가 어찌면 보수적인 그룹인데도 그분들이랑 회의를 하다보면 훨씬 넓게 보고 있다는 것 알게 돼요. 나를 떠나서 때로는 은평을 넘어서 중요한 게 무엇이나 따지고. 이게 은평 지역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건강한 방식으로 성공하는 경험을 이끌어 나갈 때 자기의 인생이 나오면서 생각이 바뀌고 사는 방식이 바뀌거든요.”(K, 50대)

“물론 은평 지역에서 은평에 대한 걸로만 한다면 그냥 지역을 위한 카페이겠지만, 내가 이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나 그 고민을 하면서 은평만 아니라 폭넓게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지역에서 무언가를 하는 거지만, 하다보니까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는 거죠. 사람들과 은평을 넘어서 넓은 관점에서 사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해보고 싶은 것들이 생겨요.”(S, 40대)

지역을 넓게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는 다시 지역 안에서 개인을 인식하는 관점의 변화와도 연결된다. 시민이라는 존재의 의미, 시민의 정체성, 지역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생각 등 지역활동의 참여를 통해 공공의 차원에서 개인과 지역사회를 인식하고 시민으로서의 감각을 키워나간다.

“작년에 다양성 워크숍을 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 마음을 나누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서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주는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생각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시민이긴 하지만 어떤 가치관을 가진 시민이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공공성,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시민. 같이 함께. 그게 결국 너무 흔하지만 지역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시민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시민은. 그런 시민이 될 수 있게 내가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하고 사람들이 건강한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기 안에서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집된다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M, 30대)

(3)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의 감수성 체득

지역에서 스스로 움직이고 결정하는 과정의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주체적인 태도를 체

화하며 공적 존재로서의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지역에서 본인이 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예전보다 책임감 있고 자율적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뿌듯했지요.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하잘 것 없는 부분이지만은 내 교육을 같이 하겠다고 와주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한다는 기분이 나 스스로에게도 직접적으로 와요. 좀 더 적극적으로 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되고. 나 자신을 찾도록 변화된 달까.”(N, 70대)

“전에는 여기서 사는 게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변두리니까. ○○구에 산다 하면 좀 창피하달까. 그런데 교육을 받고 길찾기(활동)를 하니깐 여기가 달리 보여요. (중략) 예를 들면 작년에 시니어 행복학교에서 6,70대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별거 안했는데도 이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 때 아, 우리 50대가 이 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겠구나, 책임을 느끼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그래요.”(Y, 50대)

이러한 경험은 개인적 삶의 장면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생을 설계하는 기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객관화시켜보고 다른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는 계기도 되고 있었다.

“저는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저는 그냥 주부였잖아요. 모든 생활이 애한테 맞춰졌었는데. 이제는 제 스케줄에 남편까지 맞춰 주는 거예요. 신랑이 밖에 나가면 제 자랑을 많이 한대요. 사회적 기업이 되니까 조금 달리 보게 되는 거 같아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주고 많이 도와줘요. (중략) 전에는 취미생활도 없고 집에만 있어서 트러블도 많았는데 바깥 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신랑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자존감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아이의 미래보다는 내 미래를 다시 설계하게 되었어요. 삶이 달라진 거죠.”(K, 40대)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까? 사람들이 노인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과연 나라고 피해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전부터. 내가 생각했던 노인들은 아 저기 노인이네 뭐 이렇게 취급하는 식의, 공경보다는 그런 쪽이 더 많았거든

요. 근데 그게 과연 어쩔 수 없는 건가.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는 안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누군가와 소통이 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력이나 연륜에 대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몇 년 동안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두려움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활동을 지역에서 필요로 한다는 것에 자부심도 생기고. 제가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중요한 결정하기도 하고. 뭔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 무거운 마음도 들고.”(P, 40대)

(4) 지역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기

활동을 하면서 참여자들은 지역에 존재하는 여러 다양한 이슈들을 만나게 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사안에 따라 때로는 직접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먼저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곁에서 도움을 주기도 하면서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씩 높아지고, 참여가 어색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점차 지역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행동하는 변화를 겪게 된다.

“마을 활동가를 만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이랑 연계를 해서 뭔가를 하면 바뀔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창립 때 가슴이 떨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처음에는 은평구에서 활동을 하려면 누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야 하니까 가서 들어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인데 끝나고 나서 이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전에는 내 아이만 잘하면 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다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아졌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단체가 은평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집에 있던 아줌마지만 나와서 뭔가를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다보면 대단한 은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며 되게 신나요. 저는 은평에 대한 애착이 되게 많기 때문에 될 거 같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K, 40대)

무엇보다 지역활동의 경험은 생활에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보다 적극적으로 대하도록 만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진취성을 이끌어낸다. 평범한 주민이지만 필요한 상황에서는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주도성을 가지게 되고, 이런 태도의 변화가 전반적으로 일상의 삶에 녹아들고 있었다.

“아이가 중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은평 지역의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운영위원회 일에 참여하고, 학부모들이랑 만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간선제로 하고 있더라구요. 이중 시민회원을 모아서 문제제기도 하고 직선제로 변경해서 출마도 해보고. 당선은 안됐지만. 그런류의 지역 활동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키워진 거 같아요.”(K, 50대)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 나름대로 애착이 있는 거죠. 저는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은평이라는 곳에 애착이 있죠. 살림의료사 협이 생길 때도 옆에서 여러 가지 일을 했었고, (중략) 그때도 시민회에서 살림이 있다는 걸 알고, 회원가입을 하고 소모임을 했죠. 동네에서 전업활동가는 아니니까 평범한 주민으로서 자극을 받고 필요한 거를 배우고, 그게 일상적인 삶에 녹아드는 거 같아요.”(S, 40대)

(5) 다양한 타인들의 삶을 이해하고 연대하기

지역참여는 다양한 모습의 타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하는 진한 경험을 제공한다. 때로는 갈등도 겪고 서로 팽팽하게 부딪치는 생생한 경험을 통해 시나브로 시민이 되어가며, 이 과정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깨닫고 연대의 감수성을 획득한다.

“지역에서 엄마들과 도서관 활동을 하면서 끊임없이 책을 읽었어요. 활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서. (중략)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었던 건 교육, 학습 때문인 거 같아요. 공부하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우리는 카페를 낼 때도 경제공부를 시작했고, 요즘엔 일요일 날 책읽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확확 변하는 걸 봐요. 삶의 경험과 만나는 학습을 하니까. 이제 서로 다름을 인정하죠. 내공들이 생겨서. 그게 마을이고요.”(L, 50대)

“활동을 하면서 서로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는 분들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어요. 이런 게 지역이지 않을까. 각자 다 다르게 살아가죠. 그래서 보면서 얻어가는 게 참 많아요. (중략) 그리고 지역축제를 준비하면서 은평구에 인재들이 많다는 걸 느꼈던 거 같아요. 처음에 느낌이 좋았고. 그리고 의외로 재능기부로 꾸준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은평구에 엄청 많이 있었더라구요. 각자들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또 잘 뭉쳐요. 이런 걸 전에는 잘 몰랐어요.”(J, 40대)

많은 참여자들이 지역활동을 통해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을 경험한다. 이들에게 지역활동은 확장의 계기이자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활동을 해라. 지역활동을 하게 되면 나 말고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을 알게 된다. 알게 되면서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갖게 되고, 뭔가 이제 그런 분들한테도 이익을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던져 볼 수 있잖아요. 이 분은 나하고 같은 생각이구나. 뭔가 같구나. 또는 이렇게 다른 생각이 있구나. 이렇게 연계를 하면서 확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하락)”(P, 40대)

“여기 (북카페)를 열고 변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솔직히 오랫동안 활동했지만 정식으로 인사하지 못한 지역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 공간에 와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게 그게 되게 큰 변화예요. 다양한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지역에 활동하는 사람들과 또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아요. 그게 또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줘요. 그런 사람들과 이 공간에서 뭔가를 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S, 40대)

3. 경험을 통한 변화의 의미 : 지역에서 ‘시민-되기’

이상 사람들의 지역참여 계기와 경험을 통한 변화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지역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되고 이러한 ‘지역시민’의 확산은 공동체 변화로도 이어진다. 여기서는 개인과 공동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지역참여 경험을 통한 변화의 의미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개인적 차원 : 삶의 물음에 스스로 대답하는 시민다움의 체득

개인적 차원에서 지역참여를 통해 사람들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고, 모르고 있었던 것들을 알게 된다. 더 많이 알게 되면서 전보다 스스로 자신과 세상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지역활동은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었다. 지역활동은 대개 모임과 같은 관계를 기반으로 시작되고 유지되며, 관계는 학습을 통해 형성되고 다져진다. 따라서 활동과 학습은 서로를 확장시키는 순환의 과정이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 사회가 다 돈이 아니고 다 돈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사실 이 사회가 자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을 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사회인 같은 경우에 소모임 같은 걸 하다가 또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활동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쉽게는 지역의 조합이나 교육들. 사람들도 기회를 주면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데 변화하려면 반드시 끊임없는 자기공부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S, 40대)

또한 지역활동은 혼자서 견지하기 어려운 사회적 실천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러한 경험이 쌓여 자발성으로 전환됨으로써 시민다움을 체득하도록 만든다. 시민은 “정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 주는 경험을 통해 되어가는 것이다.

“시민회가 시민들과 회원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많이 만들어 내잖아요. 이게 중요한 실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도 촛불집회 한다고 하면 제 성향 상 막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아, 이렇게 내가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시민회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많은 집회들이 있어도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민회 활동하면서는 주변사람들이 다 같이 가자 해보자 하니까 그동안 혼자서 용기 못 냈던 것을 하게 되고. 계속 참여하지 않았다면 혼자서 쉽지 않았겠다 싶어요. 작게는 일회용품을 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일상에서 이런 참여를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뭔가 계속 활동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M, 30대)

“전 사실 누구나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시민이라는 말이 특별한 건 아니고 시민이라고 정의한다고 해서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국 성숙한 자기의 자발성에 의거해서 뭔가를 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지역이 주는 경험이 그런 걸 이끌어낼 거고요.”(S, 40대)

(2) 공동체 차원 : 신뢰 관계의 형성을 통한 시민사회의 성숙과 확장

공동체 역시 사람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변화한다. 최근 지역에서 다양한 공적사업이 진행되면서 지역참여가 기획되는 경향이 생기고, 평생교육에서도 목적있는 개발과 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의 조직적인 지역참여가 유도되고 있다. 이러한 참여 기획의 확산이 구체적

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지만, 공동체 내 다양한 참여를 통한 관계의 확산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꾼다. 그리고 관계로 엮인 크고 작은 모임들은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새로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힘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소모임이 있더라 하면 우리 이거 한번 해 볼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그걸 할 수도 안할 수도 있지만 혼자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은평이 잘 굴러갈 수 있는 건 그 힘들이 각각의 단체나 사회의 조합이나 이런 것 속에서 끊임없이 뭔가가 이루어지고 끌어 옮겨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해 요. 그 구조가 중요해요.”(M, 30대)

“지역 활동 올해 11년 차인데. 저같이 이렇게 십 년 넘는 활동가들이 지역에 어떻게 기여를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요. 저희 말고 다음 세대. 사십대 중반, 초반 그 다음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도 늘 챙기고 또 그 밑에 삼십, 이십대 청년들 이친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관심 갖고 그들이 성장하는 토대를 만들어 주고.”(K, 50대)

지역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새로운 관계 맺기의 기회를 준다. 경험이 쌓이면 신뢰가 형성된다. 사람들에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생길 때 공동체는 시민사회로 확장된다. 그래서 공동체에 지속적인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 중요해진다. 사람들은 참여의 경험이 가지는 강력한 교육적 힘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공동체의 구조가 가지는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자발성이라는 건 자기의 의식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되지 않을까. 근데 교육을 받는다고 바로 의식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 행동과 실천으로 이어져야 좀 더 자기의 자발성이라는 것이 따라오지요. 그 추동력은 지역사회 구조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역적으로 자기가 속하고 있는 네트워크요. 만약 저도 네트워크가 없었다면 과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S, 40대)

“어른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는 가장 큰 고민이에요. 사회에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거는 경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경험으로 겪어야 바뀌거든요. 사십대는 책이나 교육으로는 안 바뀌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하게 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략) 하다못해 은평은 지역축제를 만들어요. 만약에 어떤 평생학습 동아리가 축제에서 부스를 운영해요. 그 안에서 활동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얻겠 죠. 그러면 이듬해 또 축제를 가고 싶겠고. 이런 과정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행사 끝나고 쓰레기를 줍는,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아닌가 싶어요.”(K, 50대)

IV. 지역사회와 시민, 그리고 시민교육

: 평생교육 실천을 향한 질문

이상 인터뷰를 통해 지역참여의 경험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시민이나 공동체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사람들의 변화 속에는 학습에서 참여로, 그리고 다시 참여 경험을 기반으로 한 학습으로 이어지는 순환과정이 녹아있다. 이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지역사회와 다양하게 접촉하면서 파편적인 체험을 일관된 경험으로 엮어내며 성장하고 있었다. 일상에서 학습과 참여의 순환이 거듭되며 경험이 쌓이면,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을 연결하는 관계의 통로들이 만들어진다. 관계맺기를 거듭해 나가면서 사람들은 자신을 둘러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인식을 확장하여 스스로 사회의 일원임을 자각하게 된다. 사람들은 학습을 시작점으로 하는, 또는 매개로 하는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만들게 되고 관계 속에서 배움을 얻어 비로소 시민으로 성장하게 되며, 이것이 곧 ‘시민-되기’의 과정이다. 시민-되기의 과정에서 ‘지역사회’는 학습과 성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이다.

파커 J. 파머 역시 시민의 교육을 언급하며, “다양한 언어가 허용되고 침묵도 허용되며 개인과 집단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으로 학습공간이 재구성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양성이 살아있고 개인과 집단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라는 공간이야말로 파머가 말하는 학습공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자 스스로 삶의 기획자가 되어야 하며, 시민을 교육하는 자는 이를 촉진하여야 한다”는 파머의 이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시민교육은 외부로부터 주입된 지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자발적인 시민주체의 형성은 랑시에르가 말한 ‘가르치지 않는 학습’을 통해서 가능하다. 지역사회가 품고 있는 다양성과 역동성은 시민들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데 좋은 자극과 계기를 주며 ‘가르치지 않는 학습’으로 작동한다. 시민교육은 이러한 ‘학습자 중심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조건들을 잘 활용하여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획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역참여의 경험이 언제나 관계의 형성과 시민성의 체득, 공동체의 확장과 성숙이라는 방향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작업에서 만난 인터뷰 참여자들처럼 지역참여의 기회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며, 참여자들이 지닌 다양한 맥락의 경험도 일반화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예의 참여가 사람들로 하여금 시민으로 존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참여를 통해 얻게 되는 의미 있는 ‘경험’들이야말로 시민교육 방법과 실천의 핵심이다. 존 듀이가 교육을 “학습자가 사회와 부딪치며 겪는 체험의 결과로부터 이어진 지적경험이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성장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듯이, 시민교육은 실제로 부딪치고 충분히 겪음으로써 형성되는 경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관점에서 시민교육은 다양한 관계와 소통의 과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학습이다.

그렇다면 평생교육 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남은 질문들은 무엇일까? 현재 지역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모든 학습이 지역사회 참여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참여할 의지가 있어도 여건이 안 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도 개인의 의지가 발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시민교육을 염두에 두고 평생교육 현장에서 먼저 점검해야 할 부분은 지역사회와의 관계와 연결일 것이다. 지역사회라는 조건을 ‘시민-되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시민들의 학습이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 작동원리가 자발적인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시민이 되어가는 경험을 얻기 위해 다양한 학습의 방법, 다양한 학습의 주제가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민교육을 기획하는 활동가들의 역할은 어떠한지 고민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지역사회 참여 경험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 얻은 많은 질문들을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참고문헌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193-221.
- 박상옥(2010). 지역사회와 학습의 관계 탐색 - 지역사회 형성 및 발전과정으로서 학습활동. 평생교육학연구. 16(2). 145-164.
- 신진욱(2013). 시민. 서울: 책세상.
- 오연호(2014).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서울: 오마이북.
- 하용삼(2011). 로컬리티의 타자화와 로컬공동체. 대동철학. 제56집. 57-78.
- 자크 랑시에르 저, 양창렬 역(2008). 무지한 스승. 서울: 궁리.
- 파커, J. 파머 저, 이종인 역(2008).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서울: 한문화.

주제 발제 3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시민교육, 어디까지 해봤니?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김미란 · 광명시평생학습원장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 루쉰의 <고향> 중에서 -*

1. 우리는 누구인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 지자체와 기관에서 시민 평생학습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

시민교육의 유형과 방법을 논하기 전에 먼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 일을 해온 경험과 전문성, 직급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지자체의 평생학습’, ‘시민 평생학습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다. 길이 없다면 길을 내고, 그 길이 막히지는 않는지, 막혀 있다면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바라보고, 느끼고,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우리는 때로는 열띤 열정을 담은 활동가의 모습으로, 때로는 주어진 업무를 다소 권태롭게 대응해가는 실무자, 담당자의 얼굴과 표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돌이켜보면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교육을 통한 변화 만들기는 어느새 무기력해지고, 그렇다고 뾰족한 대안은 없는데 뭘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위기감, 불안감이 몰려온다. 그 불안감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 짐

작해본다. “시민교육, 도대체 그게 뭐야?” “그렇게 골치 아픈 거, 왜 해야 해?” “중요한 지는 알겠어, 그런데 뭘 어떻게 해야 해?”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시민교육 활동가의 길을 떠날 수 있다.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지난 3월 12일,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이 서강대에서 한 특강이 인상적이어서 여기에 옮겨본다. 내년이면 환갑을 맞는 손석희는 ‘너는 자격이 있다’는 말을 ‘나는 자격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문으로 바꿔본다고 한다. 또한 저널리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연마하라고 주문한다. 문제의식이 있어야 문제가 발견되고, 문제를 발견해야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점은 ‘온당한가?’를 묻는 것이다¹⁾.

시민교육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면 좋을 것이다. ‘나는 시민교육을 할 자격이 있는가?’ ‘나는 시민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을 연마하고 있는가?’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관점은 온당한가?’

2. 시민교육의 지형과 맥락 이해

우리가 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지형과 맥락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제도적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민선6기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광역자치단체보다는 진보교육감이 주도하는 시도교육청에서의 추진력이 돋보인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 최초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14년 서울특별시가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과 혹은 시민교육팀을 신설 및 조직함으로써 관련 사업과 예산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시군구차원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아직 눈에 띄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관심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논의 체계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동안 주춤했던 입법 및 제도화활동도 19대 국회 기간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연초에 가시화 되었다. 지난 1월 22일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월 5일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하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남양주시 2선거구-화도·수동·호평)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안이 2015년 2월 11일 경기도의회의 제294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9067

확정되었다. 2015년 9월 9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승원 의원(새정치, 광명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9월 9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민주)시민교육 관련법으로 2014년 5월 26일 인성교육진흥법이 발의되어(대표발의: 정의화 의원) 2015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렇게 2015년 현재 한국의 (민주)시민교육 지형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이합집산을 거듭하고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어떻게 시민교육을 이해하고, 적용하는가? 연구자 집단은 떠오르는 이슈인 (민주)시민교육을 관련 서적 출판과 집담회, 용역과제로 펼쳐 나간다. 최근 1~2년 사이에 우후죽순으로 시민교육을 표방하는 기관 및 단체가 만들어지면서 민주시민교육 방법론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지도자나 자격증 인증과정을 개설하고, 대학과 연계하는 등 그 행보가 빠르게 확산되어 간다. 그동안 거버넌스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주도하고 논의해왔던 실천단위와의 연계는 부족해보여 다소 우려되는 지점이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시민교육> 관련 과목이 늘어나고 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정규과목으로 개설되는가 하면 대학원에서 시민교육의 철학적 기초가 되는 이론을 공부하는 세미나, 자발적 학습모임도 많이 생겼고, 시민교육 관련 이론서 등도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지형을 살펴보며 평생학습 맥락에서 시민교육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시민교육을 위한 경계 넘기와 통섭, 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집중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비판적 성찰

그런데 과연 다양한 시민교육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서베이 결과처럼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면 과연 우리는 잘 할 수 있을까? 기관의 철학과 의지가 있으면 가능할까? 예산과 정책, 인력이 있으면 시민교육은 활성화될 수 있을까?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2009년 평생교육 6진 분류를 통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으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평생교육 통계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참여교육은 그 비중이 매우 낮다. 평생교육의 맥락에서 본 시민교육은 여전히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은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개념과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고 어느 특정 분야만 다루기도 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한송희(2000, 2002)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의 담론을 ‘쟁송지대(爭訟地帶, contested terrain)’라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경계 넘기

를 시도하고, 통합을 시도할 때 그 본질에 가까워지고 개념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쟁송지대에 있는 평생교육과 시민교육을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이라는 틀 안에서 재해석할 때만이 좀 더 일상생활 속에서 구체적이고 현실 가능한 교육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야만 시민교육의 내용과 형태가 진화할 것이라 믿고 있다. 그동안 ‘이것은 시민교육, 저것은 평생교육’이라 구분하고 경계를 만드느라 힘을 썼다면, 이제는 울타리 안에 갇힌 시민교육을 지역평생학습이라는 일상의 범주로 끌고 와 가볍게, 그러나 진지하게 보따리 풀 듯 풀어야 오랫동안 풀지 못한 화두가 풀릴 것이라는 직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시민상, 시민성에 대한 고찰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도전과제들이 있는지 제대로 성찰하는 것이다. “시대학습, 생각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시민이 행동하는 시민이다”라는 말이 있다. 시민교육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이 ‘시민으로 산다는 것’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도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며 ‘버겁다’. 행동하기 위해서는 시대인식에 대해 부지런해야 하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되지 말아야 하며, 불의에는 저항해야 하고, 때로는 이기적일 수도 있어야 한다. 나라 안으로 보면 ‘참여하는 시민’ ‘깨어있는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고 한다. 세계화시대에는 글로벌 시민이 되어야 한다. 세계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의 존중과 연대’가 중요하다. 그러니 시민이 되려면 얼마나 바쁘고 힘든가? 그래서 사람들은 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런 점에서 파커 J. 파머가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그의 저서를 통해 ‘민주주의에서 왜 마음이 중요한가’를 다루는 부분을 주목해본다. 파머는 “민주주의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회복하려면 마음의 습관을 키워야 하고, 마음의 습관은 가까이 있는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자발적 결사체 등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한다. 바쁘고 힘든 일상이 식민화되면서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몇 년 전에 영국의 대표적 사회혁신 단체인 영 파운데이션(The Young Foundation)에서는 ‘The U’라고 하는 시민대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²⁾. The U의 조사에 의하면 지역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 즉 참여 핵심(civic core)이라고 부를 수 있는 비율은 어느 지역사회를 막론하고 5%를 넘지 않는다고 한다. 적극적 시민참여를 부르짖어 봤자 이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참여하는 시민의 저변이 확대되기보다는 Civic Core의 참여 강도만 더 높아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2)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발행하는 <수원평생학습동향리포트 와(2013.2.28.)>에 실린 기사를 재구성함.
<http://www.wasuwon.net/1818>

시민 참여 및 지역사회 내 구성원 간의 유대관계 형성이 좋은 것이라는 데에 이성적, 당위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실제로는 참여하기를 꺼린다. 끈끈한 이웃관계에서 기인한 과도한 간섭,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간섭,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과도한 책임을 그들은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과중한 업무, 긴 출퇴근 시간, 가족 대소사만으로도 현대인들은 이미 충분히 바쁘다. 그리고 힘들다. 지역 이슈에 일정 시간을 할애하여 직접 참여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들이 인식하는 이웃은 내 이웃의 얼굴을 알고, 그 이름을 아는 정도, 조금 더 나아가 이웃집 택배를 대신 받아주는 정도라는 것이다. 이웃들로 구성된 특정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해 이웃들을 모아 비공식 모임을 조직한다든지 하는 정도의 관계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한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그들이 동네상점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했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끈끈한 연대, 긴밀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약한 유대, 느슨한 연대(weak ties)가 그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고안한 프로그램은 단순하고 소박하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평생교육 분야에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다음과 같은 현상은 새롭게 주목할 만하다. 은평의 ‘숨은고수교실’, 수원의 ‘누구나학교’와 ‘뫼라도학교’, 광명의 ‘느슨한학교’, 용산구의 ‘서로서로학교’ 등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시민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과 공간이 발굴된다는 점, 배움과 가르침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낼 세 가지 주요 요소인 주민자치와 마을만들기, 평생학습이 연결되고 있다는 점으로 크게 요약된다. 이와 같은 시민주도의 평생학습현장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 문자화된 지식과 정보의 전달을 넘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담담하게 나누고 싶어 한다. 딱딱한 강의실을 넘어 그들의 일상공간이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즉 시민평생학습의 언어와 공간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김종선·이희수(2015)는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를 통해 마을학교를 주체, 공간, 목적, 활동의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하고 있다. 주체 측면에서, 마을학교는 주민의 주체형성을 돕는 마을 교육 시스템이며 주민은 교육의 주체이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주체이다. 공간 면에서 마을학교는 공간(space)을 넘어 ‘생활의 장(field)’이며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는 플랫폼이다. 목적 면에서 마을학교는 평생학습을 매개로 마을공동체 형성을 지향한다. 활동 측면에서 마을학교는 주민 간 상호 작용을 통해 학습하게 하고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시민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당위적인 차원에서 매우 강조되고 있으나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교육의 상상력은 부족하다.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민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시민의 일상세계를 재구성하여 ‘나, 너 또는 우리’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시민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되,

쉽고, 간결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시민교육의 유형과 방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교육을 둘러싼 지형은 대단히 복잡하고 얽혀있는데 평생학습의 현장에서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우리는 과연 시민교육을 얼마나 해봤는지 어디만큼 해봤는지 진지하게 자성해볼 일이다. 시민교육의 기획과 운영은 A부터 Z까지 다양하다. 단일 주제에 대해 기초부터 심화, 전문과정으로 전개하는 방식도 있고, 하나의 주제에 다른 것들을 덧대는 퓨전방식도 있다. 융복합의 과정에서 재미난 실험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중심의 의미를 찾게 된다. 여기에서는 시민교육의 내용이 아닌 방법과 유형의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 좀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가. 정형적 수렴형

(1) 강좌 및 세미나

가장 대중적이고 고전적인 유형이다. 어떤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지가 돋보이는, 의도적인 형태의 형식교육이다. 현재의 사회이슈들을 드러내고, 종합 분석하며 맥락을 이해하는 정보전달을 위주로 한다. 관련 주제 해당분야 전문가를 list-up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강사를 선정하면 일단 프로그램은 완성된다. 대중은 알겠는데 정확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를 때는 강사위촉과정에서 주고받는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앙상한 뼈대에 살이 붙기도 한다.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감수성을 높이는 측면이 강하며 시민성 함양의 목적이 드러난다. 그러나 강사의 일방적 전달이 위주가 되고, 참여자는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강좌와 세미나의 정형성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진보, 인문, 행복의 배움터를 표방하는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³⁾처럼 기관의 철학과 목적, 담당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내용적 깊이가 드러나는 내용과 형식으로 진화하기도 한다.

3) 참여연대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1996~2002년 참여사회아카데미에 이어 2009년 봄 새롭게 오픈한 참여연대 시민교육의 새로운 이름이다.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교육의 장을 넘어 시대와 삶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과 일상의 행복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진보·인문·행복의 배움터를 꿈꾸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http://academy.peoplepower21.org/>를 참조할 것

(2) 워크숍과 포럼, 토론회

워크숍은 강사의 강의보다는 참여자들의 액션플랜이 좀 더 강화되는 장점이 있다. 포럼과 토론회는 주제 분야의 전문가가 기초발제나 대표발제를 하면 이에 대한 토론이 패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다양한 관점의 논의가 오가는 입체적인 진행방식이다.

뜨거운 감자처럼 부각되는 논쟁적인 주제가 있거나 관철해야 할 입장을 가진 그룹들이 많이 조직하는 형태로서 경우에는 따라서는 끝장토론회를 하기도 한다. 주로 정책토론회로 많이 활용되는 방식이다. 최근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을 표방하며 시민교육 및 정책포럼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사)시민, 서울시NPO지원센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등의 활동을 참고해볼 수 있다.

나. 비정형적 확산형

(1) 컨퍼런스, 박람회

워크숍이나 포럼보다 규모가 크고 역동적이다. 박람회는 부스가 등장하고, 전시와 체험, 사례발표 및 시연이 포함되어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예산과 품이 많이 든다. 관련 분야의 사람들을 모으고, 자료를 모으는 방식에는 효과적이다. 타운홀미팅, 월드카페, 워킹컨퍼런스, 오픈컨퍼런스, 오픈테이블 등은 참여자들에게 입론(立論)을 제시한 다음 결과도 도출하는 과정중심의 디자인, 참여자 주도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민주)시민교육컨퍼런스, 시민교육 박람회, 사회혁신과 사회창안 등을 주도하는 희망제작소의 소셜혁신 컨퍼런스, 사회혁신파크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상상력의 진화, 플랫폼

이제는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보다는 장(場)만 마련하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르침과 배움을 넘나들게 하는 열린 구조가 늘어나고 있다. TedX, 세바시 등 온라인 강연프로그램도 훌륭한 시민교육이 될 수 있다. 정부 3.0시대에 공유와 연대, 협력, 소통을 기반으로 인터넷을 통해 대학 강의를 이수할 수 있는 새로운 고등교육시스템인 MOOC(대규모 온라인 공개강좌, Massive Open Online Course)도 활발하다. 대표적인 MOOC로는 코세라(Coursera), 에드엑스(edX), 유다시티(Udacity)를 꼽을 수 있다. 2012년 개설한 코세라는 세계 최대 MOOC 플랫폼으로 현재 스탠퍼드대, 예일대, KAIST 등 세계 100여 개 대학, 개설 과목 450여 개, 수강생 500만 명이 참여하고 있다⁴⁾.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재구성함.

(3) 시민 주도 자조학습모델

각 지자체의 학습동아리나 비공식적인 다양한 독서모임 등이 많이 있다. 규모는 작지만 시민(혹은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기획과 운영이 돋보이는 시민교육 형태이다.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적극적인 생비자로 전환되어 향후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으로 발전한다. 영국의 U3A, 일본의 시부야대학, ○○은 대학, 은평의 숨은고수교실, 수원의 누구나학교, 뭐라도학교, 용산의 서로서로학교, 광명의 느슨한학교 등은 시민 주도 자조학습모델로 다양하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교육의 주체가 전문강사에서 시민강사로, 시민교육의 장소가 강의실에서 지역의 일상생활공간으로, 시민교육의 교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경험과 수다로 바뀌고 있다.

5. 시민교육의 다양한 스펙트럼, 이렇게 바꾸자

이번 심포지엄은 실무자의 입장에서 시민교육의 기획과 운영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찾아보고 공유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다. 관점의 전환, 주체의 전환, 가르쳐야 한다는 압박감, 교육담당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강의실, 강사, 교재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전통적인 강좌기획에서부터 최근의 플랫폼 논의까지, 그 안에서 사람과 공간, 프로그램이 어떻게 바뀌고 연결되는 것인지를 찾아보는 노력이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교육이고 학습이다.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많은 시도들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수정하고, 최적화시키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와 용기는 다음과 같은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가. 거대담론에서 벗어나기

시민교육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 보니 추상적이고 거대한 이야기를 계몽적으로 구성할 우려가 있다. 웹의 진화로 인터넷 1.0의 시대에서 3.0, 4.0으로 진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내 손안의 컴퓨터인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든 사람이 현장에서 정보검색이 가능한 것은 물론, 발신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아이디어는 국경을 따라 흐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문제는 어떤 관점을 유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망을 만들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다. 원자화된 시민이 일상에서, 일터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할 수 있을 때 저 멀리에 있던 남의 문제가 내 문제와 이웃문제로 인식되고, 지역의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발짝을 내딛을 수 있으며, 공공성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나. 조급성에서 벗어나기

많은 사람들이 교육을 통한 변화는 믿고 있지만, 그 변화는 매우 느리고 더디다. 한 사람이 자신의 생애주기 곳곳에서 시민이 되고, 시민으로 살아가는 과정은 더더욱 느리고 더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 1년 단위의 호흡으로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1년 단위 몇 개 프로그램을 통해 몇 명의 시민을 참여시켰느냐는 정량적 목표를 무시할 수 없다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최근 몇 년의 흐름 속에서 이들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차 시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학습자들을 만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서는 시민교육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철학이 좀 더 분명하고 견고해져야 할 것이다.

다. 역량개발에서 벗어나기

우리들이 기획하는 많은 종류의 양성과정이 있다. 코디네이터, 학습매니저, 실천활동가 등 이른바 리더양성과정과 같은 것들이다. 몇 달 동안 몇 번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리더가 양성되지는 않는다. 리더는 본인 스스로 가진 자질을 잠재적으로 드러내고, 구체적 상황에서 발현되는 경우가 많다. 끊임없는 자극과 연결, 확장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리더들이 지역 안에서 다양한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과정과 시스템을 디자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라. 개인의 행복에서 벗어나기

마을만들기는 내 가족과 창문 밖을 볼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이 있다. 많은 경우 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안감이 있다. 이대로 있으면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 평일 저녁이 보장되고 주말이 보장되는 삶 속에서 경쟁 중심의 패러다임이 아닌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취미와 여가중심의 내용보다는 학습을 통한 공동의 삶을 만들어갈 힘, 시민력, 지역력이 생길 수 있다.

마. 일상생활에서 재구성하기

학습을 통한 공동의 삶을 만들어갈 힘, 시민력, 지역력이 생길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된다. 나는 시민인가? 나는 어떤 시민으로 살아가는가? 우리는 시민인가?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시민은 어떤 모습인가?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의 장으로서 ‘지역사회(communitiy)’와 학습내용으로서의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을 결합한 개념이다(김민호, 2011: 196). 김민호(2011)는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이라는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에서는 시민들의 주체적 역량을 키우고, 공공영역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도록 연대성을 지닌 시민을 길러내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 내 사적 공간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쉽게 찾아가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문화적 활동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적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은 그 대상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시민교육이 상정하는 공간은 국가에서 벗어나 지역공동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민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교육의 내용이 지역의 특수성 및 일상생활 영역을 반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시민교육 방법이 가능하다는 연구(이은미, 2014)도 주목을 끈다. 같은 맥락에서 ‘누구든 가르칠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미국의 ‘자유대학’이념과 ‘인간은 서로의 가장 큰 학교’라는 코메니우스의 말에 기초하여 이희수(2013)는 지식의 지역성과 관련하여 로컬의 힘, 지식의 지역 배태성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는 시민의 삶터(Living), 일터(Labor), 배움터(Learning), 쉼터(Leisure), 곧 4L이 함께 돌아가는, 인생의 사계절을 담보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한다.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은 이를 전제로 한다. 시민교육이 지역사회에 터하지 않을 경우 그 교육적 내용은 생활, 일, 여가, 배움 등과 인간의 생명과 삶을 구성하는 총체로부터 유리될 수밖에 없음을 인지하게 된다.

2014년 이후 한국사회는 세월호 사건⁵⁾ 이전과 이후로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한혜정(2014)은 자공공⁶⁾을 통해 ‘불량국가를 탈출하다_적대적 국민에서 자율적 시민으로, 그리고 환대의 주민’으로 바뀌어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국가에 대한 맹신을 넘어서 근대 국민 주권국가에 대해 낯설게 보기 시

5)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앞바다 팽목항에서 침몰한 사건. 이 사고로 안산고 수학생 행을 떠난 학생들과 교사, 일반인을 포함하여 295명이 사망하였고, 2015년 11월 현재 9명이 아직도 실종 상태여서 총 304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6) 자공공의 의미는 자조(自助): 스스로 돕고, 공조(共助): 서로를 도우면서, 공조(公助): 새로운 공공성을 만들어가자는 뜻이다.

작한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불량국가의 민낯을 보았고, 신뢰 사회를 만들어 내고 글로벌 협력을 이루어낼 이들을 자율적 시민이라 부르며, 이들이 살림/살이 경제를 일구는 마을에서 환대하는 주민으로 살게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부디 이러한 전망이 시민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들과도 공유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학연구, 17(3), 193-221.
- 김종선, 이희수(2015). 개념지도에 근거한 마을학교 정체성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21(2), 73-107.
- 이은미, 진성미(2014). 시민교육의 확장을 위한 평생교육의 의의: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6(3), 195-221.
- 이희수(2013). 평생학습의 힘, 로컬이다. 제2회 인천평생학습포럼: 지역 평생학습 3.0 학습·고용·복지 플랫폼 구축방안. 5-27.
- 조한혜정(2014). 자공공. 서울: 또하나의 문화
- 파커 J. 파머(2012).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서울: 글항아리
- 한승희(2000). 한국의 평생교육: 실천담론의 전개와 그 쟁송시대적 성격. 평생교육학연구, 6(1), 1-20.
- 한승희 외(2002).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 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 연구사업보고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제 발제 4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시민교육, 변화의 조건을 구축하자

정성원 ·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작은 일이라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

-에드먼드 버크-

I. 활동가의 정체성과 프로그램의 목적

1. 우리에게 프로그램이란 무엇인가

판사가 판결로 말한다고 한다면 안성기는 연기로 조용필은 노래로 김연아는 스케이팅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학습의 현장 활동가¹⁾들은 무엇으로 말할까요. 학습자와의 접점은 프로그램이니 활동가는 프로그램으로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 요리 프로그램이 대세를 장악해서인지 가끔 활동가를 요리사로 비유하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런데 아주 단순한 라면 끓이기에도 면과 스프 중 무엇을 먼저 넣느냐, 어느 정도의 온도에 맞춰 끓이느냐, 일반 냄비냐 양은 냄비냐 등등에 따라 맛과 식감이 달라지듯 어떤 교육적 요소를 어떻게 투입하느냐에 따라 프로그램의 성격과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①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기관의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 비전과 미션 등의 Value-ware, ②교수자, 활동가, 스텝, 학습 참여자, 자원봉사자 등의 휴먼 리소스, ③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이루는 소프트웨어, ④교육에 투입되는 자원과 공간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⑤일의 방식과 체계인 프로세스 등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때 필요한 교육의 요소들입니다.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은 이러한 기본 재료를 바탕으로 취사선택, 비율, 시간과 양 등

1) 평생교육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다양한 용어로 설명되고 있다. 평생교육사, 실무자, 담당자, 직원 등등. 그러나 여기서는 액티브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활동가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방 요리사가 제 입맛이 아니라 손님 기호에 맞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결국 이것은 요리사 고유의 레시피 문제 이전에 식객의 입맛이 무엇이라는 문제가 일차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활동가는 구체적으로 학습자를 염두에 두고 다양한 경험과 추론을 통해 요리를 하게 되고 손님이 맛있게 먹으면 당연히 보람과 긍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은 다중이건 소수건, 일회적이건 지속적이건, 혹 목표한 바에 이르든 못 미치든 활동가의 표현양식이자 정체성의 근간이 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프로그램과 활동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2.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보통 다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프로그램 개발의 통합적 절차²⁾

기관의 특성이나 활동가의 역량에 따라 강조되는 점은 다를 수 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패턴을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단순한 지식·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좀 더 차원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든 활동가는 특정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활동가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통한 목표의 달성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훌륭한 요리사는 쌀을 재료로 밥을 할 때 인스턴트 식의 밥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화력이 떨어진 환자를 위해서는 원기회복을 위해 미음을 만들어야 하고 허기진 사람을 위해서는 풍성한 밥을 제공하며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흑미밥을 제공해야 합니다. 단지 밥을 제공했다, 프로그램을 제공했다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밥인지, 프로그램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의식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시민교육을 대하는 활동가의 첫 번째 고려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민교육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그러나 교육이라는 단어에는 탑 다운의 위계적이며 계몽주의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에 관점을 뒤집어 프로그램에

2) 김용현 외,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 양서원, 2010, 71.

참여하는 학습자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습이란 경험을 통해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현대 교육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듀이(John Dewey)의 관점을 덧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듀이의 교육적 경험이란 한 시간의 수업이건 혹은 매우 장기간에 걸친 탐구활동이건 일정 시간대에 걸쳐 진행되는 개별화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을 통해 세계의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형성함으로써, 자아가 세계를 경험하는 ‘방식’이 변화되는 경험을 말한다.”³⁾

다시 말해 학습의 목표는 ‘변화’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활동가는 그런 변화를 촉진하는 것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동하는 문법은 이와는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제공하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에 머무는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학자인 히크스(David Hicks)는 모든 학습내용은 ‘지식·정보’ ‘가치관·태도’ ‘기술·역량’이라는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3가지 요소가 질과 양 측면에서 균등하게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습의 주제나 내용에 따라 강조되는 점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히크스의 관점에서 보면 시민교육 영역에 해당하는 요소는 아무래도 ‘가치관·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이 아니라 활동가의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전략과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핵심 목표를 왜 놓치는가

프로그램은 활동가의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나 말처럼 쉽지 않은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선차적으로는 평생학습의 가치와 철학이 유네스코의 관점에서 OECD의 관점으로 급격히 무게 중심이 이동되어 있는 현실을 짚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인적자원으로 해석하고 자원을 개발해야 하는 방향에 자원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며 따라서 평생학습은 도구적 측면으로 활용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 시민교육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한갓진 영역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1) 평생학습계의 보수성

평생학습의 한 축, 문화센터로 대표되는 민간영역에서는 당연히 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의 기호에 영합하는 취미나 문화예술 분야 쪽으로 편향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프라와 자원이 많이 투여되어 있는 공공영역의 평생학습은 지방자치단체

3) 김희선, 「성인교육이론에 있어 경험과 학습의 의미」, 『教育問題研究』, 제22집, 2005.3.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데, 이곳은 관주도의 보수성이 강하며 한편으로는 형식주의에 매여 있습니다. 물론 이 와중에도 빛나는 성과를 올리고 있는 지자체가 있지만 여전히 공공 영역에서는 새로운 도전과 모색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지자체장들이 평생학습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고 그 결과 각 지자체마다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지만 인문학의 본령인 비판성, 성찰성은 거세된 채 달콤한 교양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즉 ‘무엇을 위한 평생학습인가’ ‘어떤 평생학습인가’에는 아직 응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기관의 가치와 철학

교육을 대하는, 특히 시민교육에 접근하는 기관의 가치와 철학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기관의 시민교육 비중은 공식 통계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고작 1%대 수준입니다. 이렇게 시민교육 비중이 심각하게 낮은 것은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교육에 대한 개념과 관점, 절차와 방법론,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곧 시민교육에 대한 가치와 철학의 빈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 자원의 부족

풍부한 인적 물적 자원을 보유한 현장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원이 결핍된 상황에서 일을 하지만 그렇다고 업무량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변화를 촉진한다는 것은 매우 정교하면서도 복잡한 프로세스를 동반하는, 난이도가 높은 일입니다. 그러나 활동가는 기획부터 섭외 홍보 모집, 하다못해 의자 나르는 것까지 혼자 일 처리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육에 몰두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4) 전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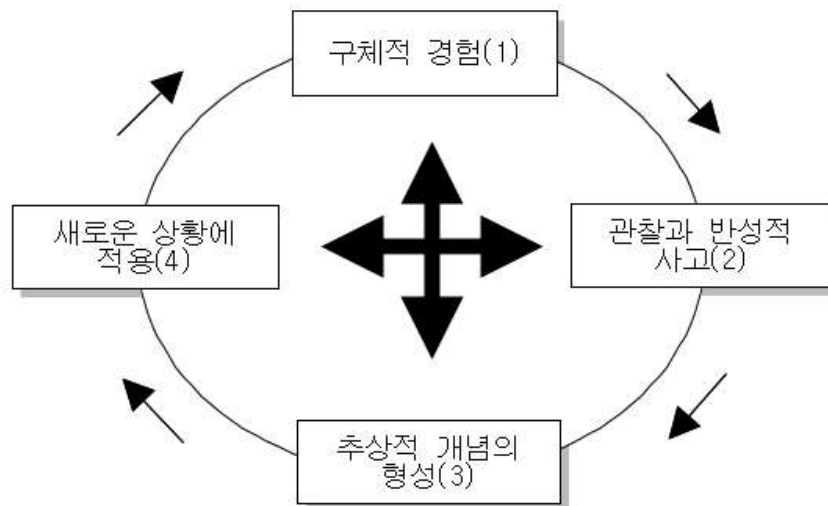
시민교육은 일반 프로그램과의 공통성에 기반하면서도 ‘가치관·태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차이점, 특히 변화를 핵심 목표로 가지고 간다는 측면에서 그에 합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교육 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으며 일상에서 범용적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현장에서 제너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Specialist)를 따로 구분하여 인력을 채용하거나 사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리스트로서의 활동을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때로는 집중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투입되고 있다 보니 변화라고 하는 목표를 놓치기 쉽게 됩니다.

한편 평생교육사를 양성하는 과정에 착목해 보면 시민교육의 중요성과 그에 기반한 교육 내용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비판적으로 점검을 해야 하며, 사후 전문연수교육 기반과 시스템의 미비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Ⅱ. 변화는 어떻게 가능한가

정확한 생성연원을 알 수는 없으나 꽤 오래 전부터 사회적 생명력을 갖고 있었고 지금도 일상에서 다반사로 사용하는 말 중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성인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시민교육의 경우 상당한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더 정교하면서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나마 동력이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1. 변화의 일반적 모형



콜브(Kolb)의 경험학습의 기본 모형⁴⁾

“콜브의 경험학습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새롭고 구체적인 경험을 겪는 실제적인 경험의 단계이다. 둘째,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해석하고 반성하는 반성적 관찰 단계

4), 5) 김진화, 「지도직 공무원의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 2008, 35-36.

이다. 셋째, 두 번째 단계의 관찰을 논리적으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아이디어와 개념을 창출하는 추상적 개념의 단계이다. 넷째는 새로운 도전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위해 새롭게 파생되는 이론이나 학습을 활용하는 행동적 실험단계이다.”⁵⁾

콜브(David A. Kolb)의 경험학습이론에서 강조되는 것은, 학습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창조되는 변화의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이 학습모형에서는 관찰과 반성적 사고라는 성찰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성찰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해탈하듯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은 지속성과 상호작용성일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학습을 한다고 할 때 완벽히 독립적인 시공간과 조건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자 혹은 학습자 상호간의 관계 그리고 그 상호관계 속에서 변화가 어떻게 촉진되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지로우(Jack Mezirow)의 전환학습이론을 관심 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환학습이론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데 “성인은 성장하면서 사회화, 문화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마주하는 다양한 경험의 의미를 해석하는 심리적, 문화적 의미구조를 갖게 된다(김경희, 1998). 메지로우(2003)에 따르면 전환학습은 문제가 되는(problematic) 준거의 틀(a frame of reference), 즉 고착된 가정과 기대(심적 성향, 의미시각, 경향성)의 틀을 더욱 포괄적이고 분별력 있게 또한 개방적이고 감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그것을 전환하도록 하는 학습을 의미한다.”⁶⁾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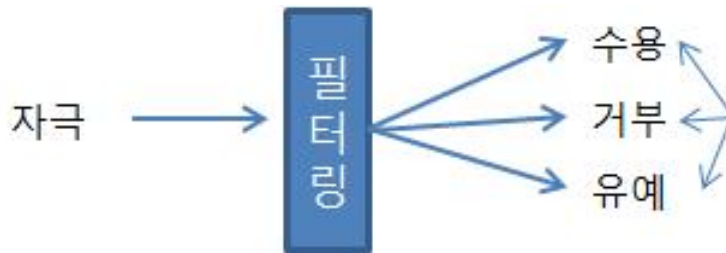
간단히 요약하면 학습자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근본적이고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의 과정이 바로 학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습은 크게 3가지의 경로를 거치게 됩니다. ①기존 가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반성하는 성찰의 과정, ②개인의 편견, 오류,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개방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특정한 주장에 대한 논쟁과 증거를 검토하는 담화의 과정, ③이어 최종적으로 인식에 대한 공유를 통하여 집단적인 행동이 유발되는 액션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과 국면마다 교수자와 학습자,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고 그러한 유기적 관계에 의해 학습이 촉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 정승일·한준상·조해경,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배움학 연구』, Vol.4, No.1, 2012, 41-79.

2. 변화의 조건은 무엇인가

콜브나 메지로우 이론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학습의 목표는 변화에 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학습을 한다고 해서 다 변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의 경우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만들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학습자는 강연이나 토론, 체험이나 프로젝트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극을 받게 되지만 이미 자신의 세계관이 정립되어 있는 성인은 그 외부 자극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자신의 지식과 가치체계라는 필터링을 통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또한 외부 자극을 대함에 있어 수용의 형태를 띠기도 하지만 현실에서는 거부나 혹은 판단 유예로 귀결될 가능성이 결코 적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수용과 거부, 유예의 형태도 특정 순간 결정되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역동적 상호작용의 순환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가가 제반의 현실적 조건 때문에 프로그램의 제공에 그 역할이 제한된다면 학습의 최종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콜브나 메지로우 그리고 메시지를 수용하는 일반적 형태를 고려했을 때 그나마 변화가 가능한 조건을 추출해 본다면 다음 3가지 형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1) 지속성

시민교육은 '찰나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세계와는 다릅니다. 아니, 찰나의 깨달음 자체도 그 순간을 향한 무수한 성찰과 제반 관계망과의 지속적이고 역동적인 긴장관계를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시민교육은 기본적으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지속성의 확보가 시민교육의 필요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이냐 하는 고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칫 장시간, 긴 회차라고 하는 양적인 측면으

로만 잘못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학습목표는 일반론적인 개념입니다. 따라서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을 예각화하여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하며 그것을 위해 어떤 요소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목표 도달을 위한 최소 필요시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자칫 지루함을 불러일으키고 그로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긴 시간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목표 도달을 위해 잘 스며들 수 있는 적정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편 지속성은 단지 프로그램의 양적 시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는 개념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람의 변화는 단기간의 성과 목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해야만 지치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2) 마주봄

조금씩 변하고 있긴 하지만 프로그램에서는 교수자의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여전히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민교육은 지식·정보나 기술·역량이 아닌 가치·태도가 중요한 학습요소이기 때문에 일방적 전달식은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 힘스의 이야기를 간단히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ey Word
지식,정보	교수자의 능력
기술,역량	학습자의 훈련
가치관,태도	대화,토론 / 경험

초등생처럼 무엇인가를 처음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지식과 정보를 세심하게 잘 전달하는 교수자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운전과 같은 기술, 역량의 영역에서는 교수자의 능력보다는 학습자의 훈련이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시민교육처럼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요하는 경우에는 대화와 토론 그리고 경험이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러나 학습의 풍경 속에는 여전히 교수자가 메인이고 방식도 일방향 전달이 중심인 형국입니다.

그나마 최근 현장에서는 일방적 강의식이 아닌 다양한 교육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어 다행입니다만 그 다양한 방법론의 기저에 흐르는 핵심은 ‘마주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마주본다는 것은 교수자와 학습자간,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① 교수자와 학습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의식 교실 풍경에 대해 신지은 시흥YMCA 실무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을 모시고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은 그 자리에서는 명쾌하고 이해가 다 된 것 같지만 곧 계속되는 일상 속에서 강의 내용은 잊혀지게 마련이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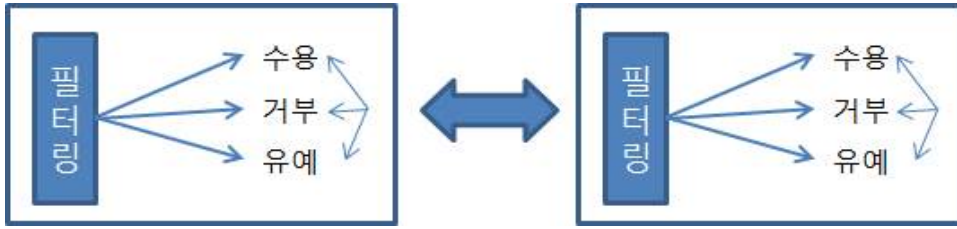
강의식 수업은 곧 학습자가 교수자를 일방적으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여기서는 일방향으로만 흐르는 전달이 존재할 뿐 역동적 상호작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교수자의 콘텐츠를 중심에 놓고서는 상호 동등한 입장의 대화와 토론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방적 바라봄의 풍경을 어떻게 하든 상호 마주봄의 관계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교수자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모든 문제의 해답이 있다. 학습자 안에 이미 답이 녹아들어 있다. 교육자의 역할은 그것을 표출시키고 다른 사람의 경험과 함께 연결하고 분석함으로써 그 내러티브 안에 숨어 있는 왜곡과 소외의 근원을 밝혀내는 것이다.”⁸⁾

결국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간의 삶의 경험 속으로 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극적인 상호침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교수자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 할 내용뿐 아니라 학습자와 어떤 방식으로 교감하고 그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어떻게 메시지를 뽑아낼지에 대한 고민과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7) 한국 YMCA 전국연맹,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 2001, 137.

8) 한승희,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활동가 인식 조사」 첨부자료1,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지금, 시민운동에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2002, 21.

② 학습자와 학습자



학습자는 교수자와의 작용을 통해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부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학습자 상호간의 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학습자는 다른 학습자가 외부 자극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관점과 가치로 판단을 내리는지, 교수자의 메시지를 수용(거부 또는 유예)한다면 어떤 경로와 이유로 그러한 것인지 등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개방적 태도도 교수자와의 관계 보다는 학습자 상호간에서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도 합니다. 메지로우의 전환학습 과정 10단계 중에서 '개인의 불만족과 전환과정이 공유되고, 비슷한 변화를 겪은 다른 사람들의 인식'이 4단계의 내용인데 전환학습이 이뤄지는 과정에는 교수자와 학습자 보다는 참여자 간의 공유와 인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촉진자(Facilitator)



활동가는 교수자와의 관계, 학습자와의 관계, 학습자 상호간의 관계와 활동을 통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활동가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해당 전문가를 섭외하여 강의장 세팅하는 것에 함몰하는 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퍼레이터(operator)가 아니라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가 되어야 합니다.

① 교수자와의 관계

필자가 외부 기관에 강의를 하게 될 때면 사전에 해당 기관 실무 담당자의 강의 요청서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대체로 강좌명, 일시, 장소, 강의 제목과 몇 줄로 요약된 내용 정도만을 정리해서 보내옵니다. 수원시평생학습관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학습자로 참여하는지, 그들의

니즈는 무엇인지, 성별·연령별 구성분포는 어떠한지, 구체적 목표는 무엇인지, 강사가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등등에 대한, 정말 핵심적인 요소는 거의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맥락 없이 자신의 말만 일방적으로 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수자가 단순한 전달자로 그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활동가는 교수자와 교육내용과 방법 등에 관해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② 학습자와의 관계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개별 주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가자 전체를 학습자 일동으로 집합화해서 접근할 경우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고 결국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됩니다. 주로 일본의 평생 학습계에서 개념화시켜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참가’와 ‘참여’와 ‘참획’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체성과 적극성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개성도 다르고 적극성도 다르기 때문에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활동가의 육성 고백은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는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다. 교육활동을 하면서 참가자 전체를 두리몽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아야 한다.

참가자 중심의 교육은 한 사람이 어떻게 참여하는지의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어야 한다. 모두가 좋은 교육, 모두를 변화시키는 교육은 없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담당자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늘 참가자가 20명인가, 40명인가이다. 아니 100명이면 더 좋다. 그래서 좌석이 비어 있지 않으면 성공한 교육이다. 더욱이 강사가 훌륭한 강의력으로 대중을 압도했다면 금상첨화다. 다음 강좌에 또 많이 올 테니까 말이다. 그래서 교육을 마치고 하는 평가는 참가자가 몇 명인지, 참가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등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이 오는 강좌, 압도적인 강사의 역량으로 좌중을 휘어잡는 강의로 사람들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교육의 역할은 그 다음에 일어난다. 결코 넓디넓은 강의장에서 새싹이 움터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15~20명 정도의 참가자가 모일 때 가장 교육적 효과가 좋다. 강사가 참가자들과 눈맞춤이 가능하고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참가자끼리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숫자! 하지만 당장 비용의 효율성을 잃어버릴 수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30명이 넘어가는 교육은 이미 50%를 포기하고 하는 교육이다. 교육과정에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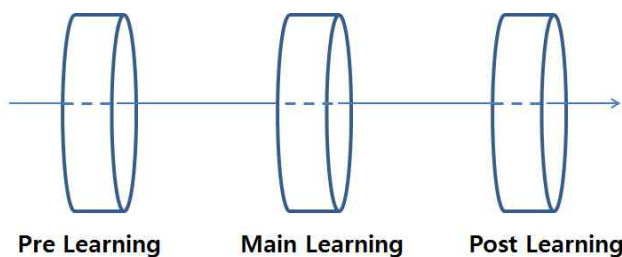
가 오더라도 더 중요한 교육과정은 참가자들이 강의내용을 내면화하고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는다. 교육과정도 실무자에게는 때때로 처리해야 할 또 하나의 일감 중 하나다.

한 사람에 집중하는 것은 교육담당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훈련이다. 한 사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화해 가는지, 성장의 계기가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열 명이 모인 학습동아리에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야 모임의 역동성, 학습과정의 역동이 읽혀진다. 그것을 읽을 수 없는 교육담당자는 교육을 맡고 있다 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⁹⁾

집합적 개념의 학습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과 발언과 고백을 경청하고 맥락을 파악하여 학습자간, 학습자와 교수간의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소결: 현대 축구와 시민교육

현대 축구는 수비와 미들 필드 그리고 공격진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대를 압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3자가 한 몸처럼 움직이지 않으면 골을 넣기가 상당히 어렵고 당연히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시민교육도 동일한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육이라고 하면 주로 교수자와 학습자가 있는 풍경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축구가 수비와 미들필드와 공격진 삼각편대로 구성되듯 교육도 메인 러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전, 사후 러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체로 메인 러닝만 교육, 학습, 프로그램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는 이 전 과정을 관통하는 세밀한 기획력과 각 단계별로 필요한 역할을 준비하고

9) 한국YMCA 전국연맹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 2001, 민주시민교육포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프로그램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Ⅲ. 무엇이 필요한가

1. 조직의 대처

(1) 고비용 저효율을 감내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논리가 중요한 작동 기제입니다. 그러나 평생 학습 특히 시민교육 측면에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역설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나 기술처럼 가시적이고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면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그 성과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이러한 맥락을 충분히 이해하고 시민교육에 접근을 해야 담당자도 무거운 짐을 벗고 편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조직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각급 기관에서 활동가들에게 업무를 배분할 때 주로 양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평가하고 분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은 난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복잡한 프로세스, 세밀한 접근,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조율과 촉진 등 상당한 내공과 역량이 투여되어야 하지만 기관의 조건 때문에 여러 명을 배치하기 힘든 것이 평생학습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비록 1명의 담당자만 배정하더라도 담당 활동가 홀로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팀 또는 조직의 안받침이 따라 주는 유기적 팀플레이가 되어야 합니다.

(3) 교육 훈련비의 배정

기관의 형편에 따라 교육 훈련비의 유무가 갈리겠지만 평생학습현장의 조건이 그리 여유롭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하면 개인에 대한 교육 훈련비는 없거나 미미한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교육은 다방면에 걸친 훈련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일지라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비록 돈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학습이나 각종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평생교육 담당자 설문조사 중에 ‘기관에서 시민교육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무엇인지’를 묻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니 ‘직원을 위한 시민교육 역량강

화 연수 제공'이 2%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교육의 발전과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일지 모르겠습니다.

(4) 시민교육 위상에 대한 전면적 고민

이번 평생교육 담당자 의식조사에는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활성화 필요성 여부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시민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92%(필요하다 31%, 반드시 필요하다 61%)가 동의를 했고 '시민교육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에 85%(필요가 있다 38%, 반드시 필요하다 47%)가 지지를 보냈습니다. '시민교육 1%'에 비해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그러나 기관에서는 여전히 시민교육이 충분히 논의되거나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기관은 시민교육 위상과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고민을 새롭게 해서 시민교육이 중심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 내 학습풍토도 만들어지고 활동가들의 고민의 양과 질도 높아지게 됩니다.

(5) 변화를 중심으로 재구조화

“교육의 과정이 학습자의 변화과정을 이끌어내고 촉진하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 이상이다.”¹⁰⁾ 이 인용문을 필자 입장에서 재구성하면 '시민교육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촉진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원론적인 질문 앞에 다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가?

프로그램 개발은 상황에 대한 분석부터 평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행위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있고, 이것을 중심에 놓고 일련의 행위를 재구조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프로그램 제공자의 역할에 머물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새판을 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공간 전략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습자와 교수자의 위계와 역할이 뚜렷한 공간, 의자와 탁자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공간, 이런 익숙한 공간의 풍경으로부터 벗어나 공간의 혁신을 일으키는 일도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10) 한송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504.

2. 개인의 대처

시민교육이 그간 노정한 무기력함이나 비생산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평생학습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요인과 해당 기관의 조직적 대처가 중요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주체적 접근과 노력이 휘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나 작은 생활 단위로 내려갈수록 메시지보다 메신저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메시지보다는 메신저

철학자, 사상가, 학자들이 글이나 말을 통해 논리정연한 고담준론의 메시지를 발신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과 철학에 따라 이해하고 수용하며 때로는 열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신한 메시지가 사회에 수렴되는 정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정신적 지도자 혹은 사회의 어른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면대면의 생활 단위로 내려올수록 메시지 그 자체보다는 메신저가 더 주목을 받게 됩니다.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보다는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입시업체 진학사가 고교생 57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교사가 좋다는 응답이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좋다는 응답보다 두 배 가량 높다.’¹¹⁾는 보도는 그러한 사실을 잘 설명해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것, 무엇인가를 새롭게 알고 변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아픔이자 한편으로는 격렬한 내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일입니다. 이러한 장면에서는 좋은 메시지를 설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메신저가 훨씬 더 소중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사람의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가는 이런 측면에서 나는 어떤 메신저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벼를 찾아 연대하라

격변기 중국의 처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되면서 스스로 의학을 포기하고 당대 민중과 함께 호흡한 루쉰. 그의 진심이 담긴 육성이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금 간판이나 내걸고 있는 지도자를 찾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차라리 벼를 찾아 단결하여, 생존의 방향이라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힘차게 나아가

11) 김용래, <고교생들 ‘관심가져 주는 교사’ 가장 좋아해>, 연합뉴스, 2015년 5월 13일자.

는 것이 나으리라. 그대들에게는 넘치는 활력이 있다. 밀림을 만나면 밀림을 개척하고, 광야를 만나면 광야를 개간하고, 사막을 만나면 사막에 우물을 파라. 이미 가시덤불로 막힌 낡은 길을 찾아 무엇 할 것이며, 너절한 스승을 찾아 무엇 할 것인가?”

-루쉰 산문집 『아침 꽃을 저녁에 줍다』 ‘청년과 지도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소리를 내며, 열이 있으면 있는 만큼 빛을 내야 한다. 설령 그 빛이 반딧불만하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다소라도 빛을 뿌릴 수 있을 것이기에, 햇불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앞으로도 끝내 햇불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유일한 빛이 될 것이다. 만일 햇불이 나타나고 태양이 솟아오르면 우리들은 물론 기꺼이 사라질 것이다”

-같은 책 ‘얇은 못의 물이라도 바다를 본받을 수 있다’ 중에서

재원도, 인력도 부족한 현실에서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자칫 중심을 잃고 기우뚱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직이 제 뜻대로 움직여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더욱 벼이 필요한 일입니다. 혼자라면 힘들고 지쳐 포기하거나 안주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다못해 함께 모여 욕이라도 하고 서로를 위로, 격려하면서 반딧불이라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반딧불은 너무 미약하다고 한숨지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영국의 정치철학자 에드먼드 버크는 “작은 일이라고 아예 하지 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는 없다”고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반딧불을 보고 누군가 다가올 것이고 그리하여 햇불로 태양으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와 민주의 역사는 늘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IV. 맺음말

시민교육 1%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시민교육이냐’와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시민교육 실천 과정에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도대체 누가 교육에 오는가, 그들은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들 학습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등 주로 학습자와 관련된 변수들이다. 교육목적과 방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교육 장면 속에서 학습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성공적인 교육이라고 말하기 어렵다.”¹²⁾

활동가는 ‘햇반’을 만드는 공정의 오퍼레이터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변화를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입니다. 활동가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를 만나고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이 설명되지만 프로그램에 매몰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산을 오를 때나 넓은 고원 등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현상’을 링반데룽(Ringwanderung)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면 종국에는 힘들고 지쳐 조난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학습의 현장에서도 링반데룽 현상을 보게 됩니다. 현장 실무자들은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는 기대를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난감한 장면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특히 시민교육 영역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링반데룽 현상이 발생하면 당연히 방향성에 대해 충분한 되새김질을 해야만 하듯 시민교육도 마찬가지로 그 교육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 제대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프로그램을 뛰어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넘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 속에서 진정한 시민교육이 이뤄지고 변화를 촉진하는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문헌

- 김용래, <고교생들 ‘관심가져 주는 교사’ 가장 좋아해>, 연합뉴스, 2015년 5월 13일자.
김용현 외,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서울: 양서원, 2010, 71.
김진화, 「지도직 공무원의 자율탐구학습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농촌진흥청, 2008, 35-36.
김희선, 「성인교육이론에 있어 경험과 학습의 의미」, 『教育問題研究』, 제22집, 2005.3.
정승일·한준상·조해경,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배움학 연구』, Vol.4, No.1, 2012, 41-79.
한국 YMCA 전국연맹, 『마을 전체가 배움터다』, 2001, 137.
한승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쟁점-민주시민교육 기초조사분석연구사업 보고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2, 504.
한승희,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활동가 인식 조사」 첨부자료1,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자료집: 지금, 시민운동에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2002, 21.

12) 2003 시민교육 미래만들기 워크숍 <지금, 시민운동에는 어떤, 시민교육이 필요한가?>

